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1 2019

VOL. 271

haninnewsinni@gmail.com

신년 특대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Introducing the World's First
4 Rear Camera Phone*

SAMSUNG Galaxy A7 | A9

Capture life differently



2X Telephoto
(10 MP)



Ultrawide Angle
(8 MP)



Low Light
(24 MP)



Bokeh
(5 MP)



www.GalaxyASeries.com

*4 rear cameras only available on Galaxy A9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 [f](#) Samsung Indonesia | [t](#) SamsungID | [@](#) Samsung_ID | [v](#) Samsung Indonesia

TRANSFER FASTER

go korean

한결 수월해진 이동과 간편해진
수하물 처리는 여행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제2터미널만의 차원이 다른
환승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SKYTEAM

GoKorean.KoreanAir.com



자카르타 ↔ 서울 매일 운항
덴파사르(발리) ↔ 서울 매일 운항



PT. BOSUNG INDONESIA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T. TAEWON INDONESIA

PT. TAEWON INDONESIA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8984 1133/1134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百年顧客



hotel 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I - 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Benefit

- 혜택**
- 고주용을 포함한 자바팔레스호텔 내식음료할인
 - 15% 할인 주류포함
 - 자바팔레스호텔스파
 - 마사지 20% 할인
 - 자바팔레스호텔골프연습장
 - 일반가격에서 30% 할인
 - 자바팔레스호텔헬스장, 사우나, 스파시설
 - 1년간 무료이용

- 자바팔레스호텔객실
- 무료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포함)
 - 숙박 50%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할인권 6매 (주중포함, All Room type)
- Seruni Coffee Shop
- 생일당일 무료생일케익제공 (사전예약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Best Quality & Deliver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ACHINE CAPACITY

Factory 1

- LDPE extruder 6 sets, emboss roller 3 sets
- sealing machine 7 sets
- HDPE extruder 5 sets, emboss rolle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4 colour 2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5 colour 1 set
- PP strapping band extruder 2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side seal machine 4 sets
- crusher machine 4 sets
- hanger machine 4 sets

Factory 2

- LDPE extruder 10 sets, emboss roller 5 sets
- sealing machine 10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4 sets
- flexo printing machine 2 colour 2 sets
- PP extruder 4 sets
- crusher machine 1 set
- side seal machine 5 sets
- hanger machine 5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roll bag machine 1 set
- HF PVC machine welding 5 sets
- corona treatment 3 sets
- slitting machine 1 set

PRODUCT

- polybag (LDPE, PP, HDPE), (5cm, 280cm width)
- all kinds of shopping bag 5 colours printing
- PVC bag
- garbage bag
- PP strapping band (PP band)
- OPP bag
- zipper bag
- emboss roll bag
- roll bag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MARKETING OFFICE

Kawasan Berikat Nusantara (KBN)
Jl. Sumatera Raya E-04, Cakung Cilincing Jakarta Utara
Telp : 62-21-440-3926 (hunting), fax : 62-21-440-3944

Email :

bhjang@indosat.net.id (Jang Bong Hee)
kenleejh@gmail.com (Lee Jo Hu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물류 운송과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HANINDO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SINCE 1993)

업무 안내

- 수출입 화물 해상, 항공 운송
- 수출입 화물 통관 (EDI ON - LINE) 및 내륙 운송
- PROJECT CARGO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 LCT / BARGE TRANSPORTATION
- 해외 이주 화물 (이삿짐) 운송 및 통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CT Transportation



BARGE Transportation



COLUMN Transportation
(L X W X H @ 52.0 X 2.1 X 2.1 M)



REACTOR Transportation
(L X W X H @ 35.0 X 7.95 X 8.45 M)

Granadi Bldg 7th Fl. South Wing, Jl.HR.Rasuna Said Kav 8-9,
Jakarta 12950 Indonesia

E-mail : hanindo@hanindo.net

Website : www.hanindoexpress.com

Telp : (62 21) 2525-123, Fax : (62-21) 2520-551, 2520-556

HP : 081-848-5570 (Mr. CHO) Hp : 0811-816-0627 (Mr. SHIN)

항상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019 己亥年 新年연하장



작가 연곡 박재한



日日新!

나날이 새롭고 활기 넘치소서!



기해 신년 황금 돼지해!

인도네시아 한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아울러 하시는 일모두 풍성한 결실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시작

김준규

분열하다 짐수레에 끌려오던
얼룩진 시간은 등신불처럼
눈물로 혼몸을 태워 재가 되고

시작은 소멸하는 왜성이 된 후 원점에서
촛불로 다시 태어나는 생의 순환

어찌 어제의 얼굴이 오늘과 다를까
깊은 잠이든 과거는 새맑은 거울로 단장하고
당신 앞에 다가 온다

뛰약벌에 그을린 얼굴
질곡을 버리며 딱지진 야자의 껍질
상처를 보듬는 바람에게 길을 묻는가

이제 시간을 태우는
등불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너울이 춤을 추는 미로의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

양수처럼 따뜻한 습기를 끌어안고
바람을 잉태하는 적도의 산동
새 싹을 맞이하는 기해년 첫 날밤에
황금돼지의 태몽을 꿈꾸며

자랑스러운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갑시다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한인 동포사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여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커다란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조코위 대통령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방문에 이어 9월 국민방한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무엇보다도 양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한 것은 향후 양국 관계 발전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굳건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과 패러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 단일팀의 선전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각국으로 방송되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평창에서 움트기 시작한 평화의 기운이 이곳 자카르타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성공과 환희 뒤에는 우리 한인회를 주축으로 한 동포사회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민관협력위원회 활동에 앞장서 주셨던 모습, 경기장을 방문하여 우리 선수들을 응원 하면서 힘찬 구호를 외쳐 주셨던 모습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툼복 지진에서 여러 피해를 입으셨던 동포 분들, 그리고 중부 솔라웨시 지진/쓰나미 사태에서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그 가족 분들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대사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지만, 혹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울러, 재해 대처 과정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계신 동포 분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게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9년은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세안(ASEAN)과 한국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 정부는 2019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금번 정상회의는 이제 본 궤도에 올라 다양한 결실을 맺기 시작한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의 협조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9년 한 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및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자,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개최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식민과 독립투쟁의 역사를 함께 하는 양국 국민의 정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의 원동력입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양국간 긴밀한 유대,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는 지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 곳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동포 분들의 값진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사관은 동포사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 보호는 제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사관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처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영사서비스 지속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동포 분들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사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새해는 황금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 모쪼록, 인도네시아 한인 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골고루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1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김창범

[신년사]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한인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행사가 많았고 인도네시아에는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모두가 힘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여 잘 감당하며 극복 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속의 우리 한인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첫 이주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물론 경영2세대 및 여성들도 한인사회의 중심축으로 합류하여, 한인사회의 정서를 공유하고 화합의 주체로써 함께 할 때 한인사회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조직이나 단체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나와 상대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대화로 그 간격을 좁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협력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한인사회가 그동안 걸어 온 경로도 무시할 수 없으며 여러 사람과 뜻을 함께하며 전통과 주어진 현실의 조건 속에 목표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속의 사람들과 정서와 이해를 충분히 담아내야 하기에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한인 모두를 아우르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수고스럽지만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꽃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열매는 더 먼 나중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씨앗과 꽃과 열매의 인연 속 어디쯤에 놓여있습니다.
옛날의 미래가 지금의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인회는 앞으로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인사회에 봉사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도 동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1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양영연

[신년사]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치러 국제행사 개최의 가능성을 보았던 반면, 롬복과 술라웨시 지역의 지진 해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교민 여러분이 고군분투했던 지난 1년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을 거란 짐작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극복해 오신 모든 교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우리 삶에 큰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되돌아보기 보단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동포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의 새해는 지난해에 교민들이 보여준 저력과 노력 그리고 정성만큼 큰 꿈이 결실을 맺는 희망찬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1일 기해년 새해 아침.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명예회장 승은호



사업장과 가정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한인 동포 및 기업인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희망차고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지난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 대한민국 안팎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동 가능성에 대한 혼란, 미연준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루피아 불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본분을 다하신 우리 한인 기업인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도 경제성장률을 5.3%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는 4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8%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9년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영향,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변수로 우리 기업인들은 여전히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을 도모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제 16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발표되었으며, RCEP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도 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격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 환경 속에서 올 한해도 우리 한인 기업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코참이 돕겠습니다. 그간 코참은 내부 혁신과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국제적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관 단체장들과 경제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각종 설명회를 통해 정보 공유에 힘쓰는 등 한인 기업에 보다 더 나은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참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 있는 해외 경제 단체를 지향하며,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인기업뿐 아니라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인 동포 및 기업인 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코참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한인 기업인 및 동포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Go Global, KOCHAM Together!

재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 송 창 근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전민식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한 해동안 한인뉴스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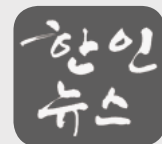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빅데이터로 본 새해의 키워드는 계획, 선물, 인사, 나이, 정리 등이었습니다. 특히 정리라는 대목에서 온라인 상의 인간관계 정리를 포함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SNS의 의존을 실감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 주문, 결제가 보편화 됐고,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기계와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여러 측면에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전달과 불필요한 대화나 오해의 소지가 없어 피로에 취약한 현대인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관계의 편리한 지속을 위한 SNS상의 새해 인사가 갈수록 새해의 느낌이 들지 않는 이곳에서 그나마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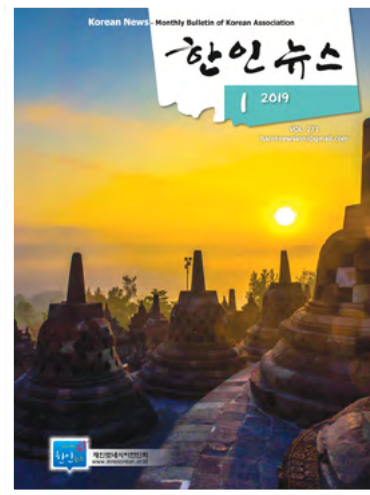
편집장 홍석영

차례

- 10 2019 기해년 신년 연하장
- 12 [신년시] 시작 <김준규>
- 14 [신년사] 김창범 대사
 - 양영연 한인회장
 - 승은호 명예회장
 - 송창근 코참회장
- 28 편집위원 칼럼 - 2019년 [최저임금] <황윤홍>
- 30 신성철 칼럼 - 소설 <자카르타의 황혼>을 통해
목타르 루비스를 만나다
- 32 이해창 경제칼럼 - 브라질, 그리고 인도네시아
- 36 건강칼럼 -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 40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15
- 44 월간 뉴스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50 자카르타 맛집 탐방 - Le Quartier <주윤지>
- 52 행복 에세이 - 안경동지 <김재구>
- 56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박경재>
- 60 산토스 보물의 집, 그리고 시공간 여행 <박범진>
- 64 아름다움을 조각해 가는 사람들 <이태복>
- 67 기업시민, 무엇을 할 것인가? 1부 <이순형>
- 71 인도네시아 : 불의고리 <한영진>
- 72 인도네시아 회사법 (269) <이승민>
- 75 Pancoran 사람들 <편집부>
- 87 생활정보

한인사회 이모저모

- 2018 한인회 송년의 밤 24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018년 제2차 회장단회 34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018년 제2차 이사회 임시총회 35
- 2018 '어느 멋진 날' 39
- 2018 상공인의 날 48
-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선수단 해단식 49
- KOICA 인도네시아, 연례모임 63
- 2018 색소폰 동호회 송년콘서트 70
- 2018 KISO 정기연주회 76
-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77



Matahari terbit di Borobudur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IG:@dqdoodle]



12월 11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간다리아시티에 위치한 셰라톤호텔에서 ‘2018 한인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제5대 한인회 3년의 끝자락에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는 김창범 대사를 대신 해 김종민총영사 및 대사관 관계자, 한인회 임원, 지역한인회, 코참, 한인사회 각 단체장 등을 비롯해 사전에 행사참가를 신청한 430여명의 한인동포가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식전행사로 아르테 여성합창단과 아버지양상블의 함께 한 한국의 가요와 캐롤 메들리로 축제의 문을 연 합창공연과 한인회부회장인 김준규시인의 신년시낭송, 모처럼 부부와 이웃이 포토월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등, 흥겨운 잔치 마당을 펼쳐나갔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후 양영연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그동안 구성원 스스로가 움직이고 발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과 한인회의 모든 활동이 한인동포 사회와 좀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고 하고 “여러 사람과 뜻을 함께하며 전통과 주어진 현실의 조건 속에 실천하는 것은 그 속의 사람들의 정서와 이해를 충분히 담아내야 하기에 공부 아닌 것이 없었고 배운 것도 많았다.



한인회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으로 작은 성과라도 한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기에 참 많이 행복했고 즐거운 동행이었다” 며 한인회임원과 한인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중민총영사는 “인도네시아에 아시안게임에서 동포들의 단합된 모습에 감동받았다. 또한 롬복과 팔루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인 동포들의 구호에 적극 동참해 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승은호 한인회명예회장은 “한인들을 화합으로 이끈 양영연 회장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준 한인사회가 자랑스럽다” 고 말했다.

이어 3년간 한인회에 헌신한 김주철, 박미례, 박재한, 전민식수석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한인뉴스 김문환논설위원과 황윤홍,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편집위원에게도 그동안의 소임에 정성을 다한 것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가졌다.





김주철수석부회장



박재한수석부회장



전민식수석부회장



김종민총영사



올해로 2회를 맞는 ‘2018 자랑스런 한인상’ 은 2005년, 땅그랑 지역 스까르노 하타 공항 뒷길에 위치하고 있는 Rumah Sakit Sitanala (인니 한센병 전문 치료 병원) 근처에 모여 살고 있는 한센병 환자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길거리에서 매일 오후, 38명의 한끼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 현재 2018년도에는 한센병 환자 한 가정당 한달 쌀 지원금 20만 루피아와 89가정에 매주 쌀 5kg씩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에 주는 헤븐스 멤버스(회원 58명, 회장 박한미)가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이 상은 인도네시아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는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뜻을 함께 하며 한인회에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박한미 회장은 “이 상도 영광스럽지만 이 상을 계기로 더 많은 인도네시아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쁘다” 고 소감을 밝혔다.

만찬 후 이어지는 가수 박강성의 열정적이고 혼신을 다한 무대는 듣는 관객과 하나로 호흡하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신문철편집위원



황윤홍편집위원



김준규시인



해븐스멤버스회장 박한미



가수 박강성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기업 경영

글: 편집위원 황윤홍

[최저임금]은 2016년부터 인플레이션에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다. 금년 2019년도 동 시스템을 적용한 4년째가 된다. 그러나 인니 내수 경기가 예상 외로 저조하여 많은 기업들이 곤혹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고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그 문제점을 알아본다.

원래 인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소비재 판매 증가율을 기반으로 기업은 매출 증가에 주로 의존하며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3-4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안정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으나, [최저임금]만은 여전히 고인플레이션과 높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여 높게 책정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곤혹을 겪고 있는 것 같다.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8년 노동부장관 통달 의거 8.03% 인상으로 결정되었는데 인니 모든 지역이 동 가이드를 기본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이전 [최저임금] 결정은 각 지방 심의회에서 수집한 정보와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하였다. 지난 2000년 JABODETABEK 임금인상은 단일 금액(월 286,000루피아)인상으로 간단히 결정하였고 당시는 산업별 임금 차이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그 후 임금결정 권한이 각 지역(provinsi, kabupaten, kota)에 위임되고, 이어 각 산업 분야별로도 인상안이 세분화되는 등 복잡한 구조로 변경되었다. 원래 임금 인상은 [KHL: 적정생활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각 단체들간 힘 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최근 4년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6년 이후 [최저임금]의 결정 근거는 임금에 관한 정령 [No. 782015 : 2015.10.23자] 노동 법안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4조 (2)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을 기본으로 한다.

2016년: 인플레이션 6.83% + 경제성장률 4.67% = 11.50%
 2017년: 인플레이션 3.07% + 경제성장률 5.18% = 8.25%
 2018년: 인플레이션 3.72% + 경제성장률 4.99% = 8.71%
 2019년: 인플레이션 2.88% + 경제성장률 5.15% = 8.03%

>제 43조 (5) 적정생활수준 (KHL : Kebutuhan Hidup Layak) 의 기준 항목은 매 5년마다 수정한다.
>제 14조 (2) 회사는 직급, 직무, 근무연수, 학력, 능력에 따른 급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법에는 州최저임금 (UMP) 결정은 해당년도 60 일전, 즉 2019년은 2018년 10월31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주 최저임금은 394만972루피아로 결정되었고 서자바, 중자바, 반텐, 남북수마트라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은 최저 임금 상승률을 8.03%로 결정하였다.

그 외 Kabupaten, Kota지역의 최저임금 (UMK) 은 40일 전인 2018년 11월 21일 결정되어야 하는데 동일 발표된 [최저임금]도 모두 동일하게 8.03%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2륜, 4륜 관련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섹터별 최저 임금은 그 결정이 지연되었다.

노동법 (법률 2003년 제 13호) 제 10장2절에 [임금] 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 88조

- (1) 모든 노동자는 적정한 생활 수요(Penghidupan yang layak)를 충족할 수 있는 수입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임금 정책을 실시한다
- (3)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을 유념하여, 적정한 생활 수준(Kebutuhan Hidup Layak)을 기반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부장관령 (No. 21/2016) 상기 1항 [적정한 생활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의 기본 조건이 되는 KHL은 원래 매 5년마다 재 실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KHL의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KHL 기초액 산정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임금에 관한 정령 (No. 78/2015) 의거 인니 전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예상 수치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은 이를 일률 공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비논리적 방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동 현행 제도에 대한 그간의 불만이 서서히 표면화 되고 있고 계속 현재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 인상할 경우 조만간 한계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노사정 모두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현재 발표하지 않는 KHL이 5년마다 수정 발표될 경우 그간 [최저임금] 인상 결과와 충돌이 불가피하여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고충

인니는 원래 고 인플레이 국가로 인식되어져 모든 기업의 사업 전략은 코스트 절감보다 판매 증대를 통한 이익을 확보하는 경영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높게 책정되었다. 이에따라 고 인플레이를 기반한 기업 경영은 판매 부진과 함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코스트 증가로 심각한 고전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로 정해진 [최저임금] 인상은 반면 기업내 고학력자, 상위직급, 장기 근무자의 임금 상승을 어느 정도 억누르는 역할을 하는 면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부진과 함께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될 경우 직장내 하위 및 상위 직급자간 임금 격차도 급격 축소되어 질 것으로 기업은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소설 <자카르타의 황혼>을 통해 목타르 루비스를 만나다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인에게 낯설고 어려운 나라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근현대사를 공부했지만 그리 흥미를 못 느꼈는데, 최근 목타르 루비스(Mochtar Lubis 1922~2004)의 작품을 만나 인도네시아 독립과 건국 시기의 사회상과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으면서 그 시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었다. 또 목타르 루비스라는 작가가 언론인에게도 관심이 생겨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정영림 교수와 김장겸 교수의 글을 찾아보게 되었다.

목타르 루비스는 1950년대 목직한 인도네시아의 모습을 <자카르타의 황혼 Senja di Jakarta>이라는 낭만적인 제목의 소설에 녹여 넣은 유능한 인도네시아 작가이자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언론인이다. 한국전쟁 중군기자로서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 Catatan Korea>(1951년)을 써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언론인으로서, 목타르 루비스는 지금도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영통신사 <안따라 Antara> 설립에 참여했고, 언론 탄압의 역사를 증명하는 인도네시아 일간지 <인도네시아 라야 Indonesia Raya>의 발행인 겸 주필이었고, ‘아시아신문재단’ 과 ‘국제신문협회’ 등 언론계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또 <동남아시아 안내>, <미국 여행기> <세계 속의 인도네시아> <언론과 기자> <작문 기술> 등을 썼다.

작가로서, 목타르 루비스는 혁명을 주제로 삼은 소설 <내일은 없다>(1950년), <끝없는 길>(1952년), <사랑과 죽음>(1977년);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삼은 소설 <자카르타의 황혼>(1963년), <호랑이!호랑이!>(1977년); 휴머니즘을 주제로 삼은 소설 <황폐한 대지>(1964

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삼은 단편소설 <밤나무 골>(1956년) 등으로 유명하다. <끝없는 길>은 1950년대에 인도네시아 독립 초기 시대와 혁명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1952년에 문학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문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목타르 루비스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당시 유력 신문이었던 <인도네시아 라야> 폐간과 그의 수감이다. 그는 수카르노 정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독재를 맹렬히 비판한 혐의로 1956년 12월에 그를 반혁명 위험인물로 지목돼 투옥과 연금 생활을 10년 가까이한다. 이후 수하르토 정권은 1968년 <인도네시아 라야>를 복간시켰지만 1974년 1월 말라리 사건 보도를 이유로 6년 만에 다시 폐간시키고 1975년 2월에 그를 수감한다. 하지만 전세계 언론인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2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한다.

소설 <자카르타의 황혼>은 매일매일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쓰레기 차의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가혹한 운명을 타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인물인 이탐과 사이문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그들과 대비되는 인물로 정권 유지와 권력 쟁취를 위해 추잡한 짓을 서슴지 않는 정치 모리배들, 진실과 거리를 둔 채 부와 명성만 탐닉하는 언론인들, 자신의 사리사욕만 취하는 반사회적 기업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공무원들, 금전에 얽매어 양심과 이상을 파는 문학인들, 사치와 허영에 눈 먼 특권층 부녀자들이 등장한다. 창녀, 마부, 베짜꾼,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유민들의 비참함도 현대 대도시의 한 단면으로 묘사된다.

<자카르타의 황혼>은 목타르 루비스가 언론인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작가로서의 재능까지 인정받게 한 작품이다. 목타르 루비스는 이 소설을

1956년 겨울부터 1961년 봄까지 감옥에서 집필해 완성했지만, 그후에도 연금상태여서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3년 영국에서 최초로 영문으로 번역해 출판했다. 그후 이 작품은 한국어를 비롯해 세계 각국어로 번역돼 큰 주목을 받는다.

목타르 루비스는 스스로 “나는 틀림없이 훌륭한 민족주의자는 되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인간,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사람, 미국사람, 한국사람, 아프리카사람이건 간에 내게는 각 개인의 본질, 인간의 양심이 중요하다” 라고 입버릇처럼 되이며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작품’ 을 썼다.

국가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목타르 루비스는 “두려운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나도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까 두렵고 심한 고통을 당할까 두려우며 총에 맞아 죽지 않을까 겁난다. 그러나 진실한 인간의 목소리는 항상 승리한다” 라고 답했다.

그는 또 “만약 누구든지 내게 이 검은 색을 흰 색이라 말하기를 강요하면서 끊임없이 매질을 가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그 매질을 택하겠다” 라고 확고부동한 삶의 자세와 각오를 밝힌 바 있고, 소설 <끝없는 길> 속 주인공 이사(Isa)가 고문 받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목타르 루비스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저널리스트이자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작가로, 네덜란드 식민지배기, 혁명기, 독립 이후 시가의 사회현실과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경험한 내용을 일관성 있는 소재와 스타일로 풀어냈다.



나도 그의 작품을 통해 네덜란드 식민지부터 독립 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등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온 작가와 작품 속 인물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날 수 있었다.

목타르 루비스 연대기

- 1922. 3. 7 수마트라에서 출생
- 1945 안파라통신 설립에 참여
- 1949 일간지 <인도네시아 라야> 창간
- 1950 <내일은 없다> 소설 출간
- 1950 중군기자로 한국전쟁 참전
- 1951 <한국전쟁 기록>(Catatan Perang Korea) 출간
(참고) 2017년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출판됨
- 1952 <끝없는 길> 소설 출간
- 1956 <여인> 단편소설집 출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밤나무골>이 포함됨.
- 1957~1966 <인도네시아 라야>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폐간과 복간 반복. 수감과 가택연금
- 1963 <자카르타의 황혼> 소설 영어판 출간
- 1964 <자카르타의 황혼> 소설 인도네시아어판 출간
- 1966 <황폐한 대지> 소설 출간
- 1968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저널리즘 부문 수상
- 1968 일간지 <인도네시아 라야> 수하르토 대통령에 의해 복간
- 1974 일간지 <인도네시아 라야> 수하르토 대통령에 의해 폐간
- 1975. 2 목타르 루비스 수감 후 국제사회의 반발로 2개월만에 석방
- 1975 <호랑이!호랑이!> 소설 출간
- 1977 <죽음과 사랑> 소설 출간
- 2000 국제언론연구소가 선정한 지난 50년 간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운 ‘세계언론영웅50명’에 뽑힘.
- 2004. 7. 2 사망(82세)

<고침> 2018년 12월 호에 목타르 루비스가 사망한 해를 1974년으로 표기했는데, 이를 2004년으로 바로잡습니다.

두 커피왕국의 대선(大選) 브라질, 그리고 인도네시아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인도네시아 최대 화두는 4월에 있을 대선일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하반기 부터 이미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들어갔었다. 2014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조코 위도도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對)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재대결이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주요 이슈가 경제 문제로 부각되며 선거 캠페인 역시 지난 대선과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프라보워가 5년 전 대선에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경제 국수주의와 더불어 자원민족주의 이슈였다. 그리고 그 이슈는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사위이며, 군 장성 출신인 프라보워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세계 곳곳으로 전염 중인 신흥국 위기 등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조코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코위 측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함께 환율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루피아화의 급격한 하락세 이후 환율이 중대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환율이 심리적 방어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하튼, 올해의 대선결과는 작년 부터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및 현지 기업들은 선거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각종 투자들 선거 이후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선이 언급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나라가 있다. 인도네시아와 나란히 전세계 커피수출 1,2위를 차지하는 나라, 방대한 인구와 자원을 배경으로 고속성장을 경험하여 인도네시아와 함께 BRICS 5개국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몇해 전 부터는 신흥국의 취약한 금융상황이 언급될때 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이른바 ‘Fragile 5’ 로 지목되는 나라, 정치, 경제적으로 인니와 많이 닮아 있는 나라, 바로 브라질이다.

브라질 또한 작년 말 우여곡절을 끝에 ‘브라질의 트럼프’ 라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여성과 흑인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독재 시절엔 거리가 안전했다. 그냥 독재로 곧장 가자” 등의 막말로 유명한 만큼 그의 당선에 국제사회는 브라질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했지만, 부패·치안·경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브라질 국민은 기존의 주류 정당에 질릴때로 질려 등을 돌렸고 군장교 출신 아웃사이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택했다.

그렇다면 왜 브라질 국민들은 기성 정치인들과 그 시스템에 대해 그토록 염증을 느끼게 된 것일까? 바로 진보·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되풀이된 부패 때문일 것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인 넷플릭스는 이러한 브라질의 상황을 연달아 드라마로 제작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작되었던 ‘메커니즘’ 이란 유명 드라마는 2014년 당시 대통령이던 지우마 호세프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과 최대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 등이 연루된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부패 스캔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스캔들로 인해,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던 지우마 호세프는 탄핵되었으며, 전직 대통령 룰라는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당시 페트로브라스를 비롯한 건설사들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정치권에 뿌린 불법 정치자금은 무려 원화로 3조를 넘는다고 하며 기소된 이만 260명이고 이중 125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해당 커넥션은 좌파와 우파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져 왔으며, 심지어 빈민촌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불렸으며 8년 집권(2003-2010년) 후 퇴임시에도 지지율이 87%에 육박했던 최고 집권자 룰라 전 대통령까지 얽혀 있었던 만큼 브라질 국민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배신감이 어느정도일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스캔들이 밝혀진 이후 국고에 환수된 돈만 3조 6천억원 이상인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브라질의 뇌물 생태계를 돌고 있는지 어렵잡기조차 어려우며, 조사 결과 이 뇌물의 20% 가량은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해당 사건 수사가 이어지던 2017년 조차 브라질 최대 육

류기업이 정치인 1,829명에게 뇌물을 증여한 대형 사건이 또 일어났다. 때문에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당시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을 이끌어내고 대통령직에 오른 미세우 테메르 마저 이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탄핵 위기까지 몰린 것이다. 그야말로 부패의 악순환이다. (굳이 인도네시아와의 비교를 차치하더라도 건국 이래 최대의 정치스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재연된 국내 상황 또한 이입될 수 밖에 없다.) 브라질에서 이런 부패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나라를 통째로 삼킨 ‘체계’ 로 자리 잡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서는 거의 언제나 인프라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비자금 조성의 온상이 된다. 아울러, 브라질만의 특수한 정치 상황 또한 한 몫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선거 비용을 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은 뇌물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1980년대 브라질을 지배했던 군부가 민주화 세력의 단합을 막기 위해 다당제를 도입한 것도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3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다 보니 여러 당들의 뜻을 모아가는 데는 언제나 뒷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난립한 정당 때문에 집권당에서는 연정을 위한 자금이 더더욱 필요했으며 그 돈은 결국 뇌물에 의한 비자금으로 조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체계가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대선 뉴스에 브라질이 오버랩 되었으며 다시 브라질의 정치 스캔들에 인도네시아 상황이 연상되는 것은 이제 인니 생활 4년차가 된 필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사고의 흐름이었다. 브라질의 부패와 관료주의가 이 나라 특유의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브라질 코스트’ 란 말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코스트’ 또한 만만치 않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쪼록 올해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은 좌·우, 진보·보수를 떠나 인도네시아 코스트를 조금이라도 다운 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 본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018년도 제 2차 회장단 회의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10시, 한인회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가 열렸다.

양영연회장과 전임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선거관리위원 등 총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임시총회 때 선출된 전민식 당선인의 회장직사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앞으로 한인회의 운영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이날 회장단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27일에 있을

‘이사회임시 총회’에서 당선자 유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한인회의 화합과 질서유지를 위한 한인회의 정상화 및 재선거와 관련한 상정 안건을 논의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에 선거 관리위원의 전원합의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제6대 한인회장 선거를 재선거하기로 결의하였고 현 한인회장의 12월 31일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우려 한인회의 정상화와 안정성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이 오갔다.

2019년 1월1일부터 **중부자바 스마랑 한인회 제 9대 유성천회장**의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장 : 유 성천 <08122867994> E-mail. pthesed@gmail.com

수석부회장 : 임중학 <081325257777> E-mail. jonghaklim@hotmail.com

사무총장 : 문성구 <0811275080> E-mail. basilliea@gmail.com

임시사무실 : Jl. Muria No.29 RT.07 RW.04 Gembongan. Karangjati

Kota Semarang 50552. Pt. Hesed Indonesia

TEL <0298. 522587. 522588. Fax 0298. 522036.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018년 제2차 이사회 임시총회



12월 27일, 쉐라톤 자카르타(간다리아시티) 호텔에서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이사회 임시총회를 열었다. 당선자 사퇴로 인한 재선거에 따른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하기 위한 자리로 제적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2018년 제 2차 이사회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제적임원 총 114명 중, 위임장 제출임원 41명 외 출석임원 38명으로 총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의제 심의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상정된 모든 안건이 큰 무리 없이 통과되었다.

정관에 명시된 모든 관련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며 동시에 미흡한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정관에 준한 선관위 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12월 12일자 제 4차 선거관리위원 전원 합의로 제 6대 한인회장 선거를 재선거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이사회 임시

총회에 상정하여 임원 전체의 찬반 의사를 물음으로써 문제의 소지없이 차기 한인회장 재선거가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한 조치였다.

제 1안으로는 당선자 사퇴로 인한 재선거에 관한 건과 제 2안은 재선거 실시 및 한인회정상운동을 위한 현 회장단 임기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연장에 관한 건, 제 3안은 차기 한인회장의 임기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제한하는 건, 제 4안으로는 현 선거관리위원회 유지에 관한 건이 의결에 붙여 통과 되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착지를 잘하면 다치지 않으며 다음 단계로도 나갈 수 있다. 한인회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기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은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가가 미국 대통령, 유명인사 및 일본의 손정의 회장 등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약 30만명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여 얻어진 자료로 병 없이 오래도록 활력 넘치는 인생을 누리는 법을 소개한 것이다.

사람은 일단 병에 걸리면 의사의 치료만으로 건강해 질 수는 없다.

수술이나 투약보다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

동양의학에서는 “미병(未病)”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즉 건강하다고 볼수 없는, 병에 걸리기 바로 직전의 상태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만성적인 변비나 설사, 불면증이나 어깨결림 등을 소홀히 하면 심각한 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병도 식사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려진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장을 위하여 매일 요구르트를 먹는다.
2. 칼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매일 우유를 먹는다.
3. 과일은 살찌기 쉬우므로 삼가고 비타민을 먹는다.
4. 고단백 저칼로리 식사를 기본으로 한다.
5. 수분은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로 섭취한다.
6. 수돗물은 잔여 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끓여 마신다.
7.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고 체격이 커지지 않는다.

육류 위주의 식사의 위험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성장”이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은 어느 시점이 되면 “노화”가 시작된다. 성장을 촉진하는 육류 위주의 식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 노화를 재촉하는 식사가 되는 것이다.

육식을 계속 섭취하면 장벽이 점점 딱딱해 지고 두꺼워 지는데, 이것은 식이섬유가 없어 대변의 양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이 적은 양의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장이 필요 이상으로 연동운동을 해 장벽의 근육이 단련되어 두꺼워지고 커지는 것이다. 장의 악화는 대장암, 자궁근종,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비만, 유방암, 전립선 암, 당뇨 등 이른바 “생활습관병”으로 발전된다. 이것은 몸의 내부에서 병들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증세로 약을 많이 복용한다. 하지만 모든 약은 한방약이든 화학약품 약이든 우리 몸에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효과가 있는 약 일수록 독성도 강하다. 또한 약으로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 하다.

예를 들어 위궤양의 원인은 식사의 양, 질, 불규칙한 식사시간이나 스트레스 등이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한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우유는 소화엔 나쁜 식품이다. 우유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고, 알레르기 체질을 만들기 쉽다. 요구르트는 매일 먹으면 장에 좋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요구르트가 좋다는 것은 유산균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사람의 장에는 원래 유산균이 존재하는데 이를 “상재균”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설령 들어오는 것이 몸에 좋은 유산균이라 하더라도 상재균이 아닌 것은 이 방어시스템에 걸려 살균되게끔 되어있다.

방어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작동 하는 것이 “위산”이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장에 이를 때쯤에는 위산에 의해 거의 죽는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이 함유된 요구르트도 등장 하고 있다.

요구르트를 많이 먹으면 장이 나빠진다는 것은 30만 건의 임상데이터가 입증하는 결과이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시대다.

건강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결정한다. 우리의 몸은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한다. 즉 건강도 병도 평소 식생활의 결과다. 평소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몸속에 축적된 “독”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온 몸의 세포에 장치되어 있다. 수많은 폭탄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폭발하느냐는 그 사람의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다르다. 식품첨가물이나 농약을 사용해서 자란 식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독소를 관리하는 간에 장치된 폭탄이 가장 먼저 폭발할 것이다.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차나 위장약을 자주 먹는 사람은 위에서 먼저 폭발할 수도 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음식을 좋아하면 종종 상복부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체장염 일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기름은 공기에 접촉하면 바로 산화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조리할 때는 되도록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차라리 인공적으로 짜거나 추출한 것의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곡류, 콩류, 땅콩이나 식물의 씨앗 등 기름의 원료가 되는 것을 그대로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식사방법은 곡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고, 육류, 생선, 유제품, 달걀 등의 동물성 식사는 되도록 전체의 15%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육류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몸에 나쁘고, 어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우리 몸에 좋다고 보면 된다.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지방은 나쁘고,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동물의 지방은 좋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 돼지 및 새의 체온은 38.5~40도로 사람보다 높다. 닭의 체온은 이보다도 높은 41.5도다. 이와 같이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지방은 그 온도에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보다

체온이 낮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하게 굳어진다. 이러한 지방이 혈액의 점성을 높이는 것이다. 끈적끈적한 혈액은 흐름이 나빠져 혈관 속에서 정체되거나 막혀 버린다.

한편 변온 동물인 어류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낮은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생선의 지방이 혈액의 점성을 낮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따라서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도 육류로 섭취하는 것보다 생선류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다. 바다에서 나는 김은 37%가 단백질이고, 다시마가 아미노산의 보고이고, 대두는 밭에서 나는 고기로 불리울 만큼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현미” 밥이 최고로 좋다. 벼의 씨앗인 “쌀”은 열매를 맺은 상태에서 왕겨라는 껍질에 쌓여 있다. 이 왕겨 부분을 벗긴 것이 “현미”, 현미에서 과피, 종피, 호분층 등 “겨”라고 불리는 부분을 제거한 것이 “배아미”, 여기에서 배아(씨눈)까지 제거해 배젓만 남은 것이 “백미”이다. 따라서 현미는 생명력을 갖춘 살아있는 식품이고 백미는 죽은 식품이다.

또한 식사의 기본은 신선한 것을 소식하고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다.

소식을 하게 되면 먹은 것이 거의 깨끗하게 소화 흡수 됨으로 소화되지 못한 여분의 물질이 장내에서 부패되어 독소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어진다. 생선은 양식보다 자연산을, 채소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을 먹고, 자연에 가까운 식품에는 벌레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으나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있으면 기생충이나 벌레로 인한 해도 방지할 수 있고,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 “물”이다. 물은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큰 역할은 혈액의 흐름을 좋게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다.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쉽다.

물을 많이 마시면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고, 기관지나 위장의 점막 등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장소가 좋은 물에 의해 촉촉해져 있으면, 면역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기관지의 점막이 건조해진다. 기관지에서는 가래나 점액이 나오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것이 기관지에 들어붙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다.

또한 물보다 차, 커피, 탄산음료, 맥주 등을 많이 마시면 혈액 중에 수분을 보충하기는 커녕 반대로 탈수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

좋은 물이란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환원력이 강한 물이다. 환원수 정수기는 물을 전기분해 함으로서 이온화시켜 환원력이 있는 물을 만들어 낸다. 이보다 더 좋은 물은 해양심층수나 오염되지 않은 샘물도 좋다.

미네랄 워터는 패트병에 오래두면 환원력이 떨어짐으로 주의하자. 물은 언제나 20도 전후의 것이 가장 몸에 좋다. 너무 찬 물은 몸을 단숨에 차갑게 함으로 설사나 다른 이상의 원인이 된다.

생활습관 중 가장 나쁜 것은 밤늦게 식사하는 것이다.

잠잘 때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그 대부분이 인슐린의 작용으로 지방으로 바뀌고 만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변비가 있는 사람은 장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됨으로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먹은 것을 제대로 배출해 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식품도 장내에서 부패해 독소를 만들어 낸다. 이런 경우에 “커피 관장”을 권유한다.

“건강한 식사법”을 정리하면

1. 식물식과 동물식의 균형은 85: 15로 한다
2. 전체적으로 곡물(잡곡, 콩류 포함)을 50%, 채소나 과일을 35~40%, 동물식은 10~15%로 한다.
3.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곡물은 정제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4. 동물식은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생선류로 한다.
5. 정제하지 않은 신선한 식품을 자연상태 그대로 먹는다.
6. 과일은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다.
7. 우유와 유제품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8. 마가린이나 튀김을 삼간다.
9. 꼭꼭 씹어서 소화한다.
10. 수면 5시간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
11. 술과 담배는 최악의 생활습관으로 줄이든지 끊는다.

“좋은 물”을 마시는 방법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0cc의 물을 마신다.
2. 점심식사 한시간 전에 500cc를 마신다.
3. 저녁식사 한시간 전에 500cc를 마신다.
4. 물은 어떠한 경우도 20도 정도를 마시고, 찬물은 사양한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실천방법은 올바른 식사, 좋은 물, 올바른 배설, 올바른 호흡,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 웃음과 행복감이다.

인간의 몸은 원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 받는 것은 상기와 같은 방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물을 마시며, 건강한 식사법을 지키고,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어 모두가 병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기원한다.

참고 자료: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신야히로미 지음)

글: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제공

‘송구영신’ - 2018 연말 ‘어느 멋진 날’ 행사 통해 연말 맞다



김장체험행사 후 단체사진

‘연극으로 배우는 한국어’ 반 학생들의 ‘홍부와 놀부’ 공연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연말을 맞아 12월22일(토) 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세종학당·문화강좌 종강식 및 발표회와 12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김장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영화 <좋아해줘> 공동관람, 종강식 및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 발표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셰프’와 함께하는 김장체험행사로 구성됐다.

1부 영화 <좋아해줘> 영화 공동관람에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인 종강식에서 2018년도 하반기 수업을 졸업하는 세종학당과 문화강좌반 학생들은 몇 달 동안 열심히 들은 수업을 마치며 아쉬움을 금치 못했으나, 이내 연극으로 배우는 한국어 반 학생들이 선보인 ‘홍부전’ 연극 발표회와 사물놀이 반 학생들의 공연을 보고 즐기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어서 문화원 주최·한식협회 주관으로 사전등록을 통해 등록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장체험행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준 셰프’가 일일 체험 강사로 등장해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재료다듬기, 양념 배합, 김치 소 만들기, 양념 문히기 등 전 과정을 눈으로 담으며 열심히 따라했으며, 준 셰프도 참가자들에게 아주 잘 따라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체험 종료 후 참가자들은 문화원에서 연말을 맞이해 준비한 맛있는 한국음식을 먹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자신을 한국음식 팬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한국음식을 너무 좋아해 김치를 꼭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워 포기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식당에서만 먹어보던 김치를 직접 만들고 들고 갈 수도 있어 너무 뿌듯하다”며, “만든 김치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먹어볼 생각”이라며 참가소감을 전했다.

문화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하는 여러분은 문화원의 자랑이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국과 문화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 달라”고 당부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도 등재된 김장문화를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주재국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원은 2019년도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체포되어 족자로 압송되는 아미르 샤리푸딘

지난 호에 이어

이번 내각은 이전처럼 KNIP에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복무하는 것이었다. 샤리르와 아미르 샤리푸딘 두 명의 항일전사 총리들을 소진시킨 수카르노는 부일 전력의 하타를 대신 총리로 세우면서 이제야말로 더 이상 서방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일본 부역자의 울무를 끊고 국제정치 무대 전면에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새 내각은 PNI당과 마슈미당 및 무소속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아미르와 좌익세력은 야권으로 밀려났다. 아미르 샤리푸딘의 출세가도는 일단 여기서 멈추는 듯했다.

총리에 취임한 하타 부통령은 국방장관도 겸임했다. 하타의 내각은 좌익정당의 인사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내치에 힘쓰며 특히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려 노력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지난 아미르

내각 당시 중도폐기되었던 레라프로그램을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타는 전임 아미르와는 달리 레라프로그램을 통해 군 내의 좌익세력을 청산하려 했고 수디르만장군이나 군의 위상을 격하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 정책의 기본취지는 병력감축을 통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난립한 파벌들을 정부의 지휘권 밑으로 흡수해 일사분란하게 포진케 하는 것이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각지의 부대들이 중앙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 판단과 결정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타의 정규군 재편 및 최적화 정책 첫 번째 조치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병력감축이었다. 그는 당시 50만에 달하던 군을 16만 명으로 줄였고 이외에

약간의 비정규 계렬라만을 남겨 두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타는 16만에서 다시 정예화를 시도해 5만 7천 명선까지 축소하려 계획했고 군사 전략 면에서도 거점방어개념에서 정예군을 능동적으로 기동시키는 이동공격개념으로 바꾸려 했다. 이 정규군 이동공격에는 농민들로 구성된 향토방위군의 지원도 계획되어 있었다. 하타내각의 제안들을 정부가 받아들여 1948년 1월 2일 국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국방장관에게 집중시키는 법안이 서명되었고 BP-KNIP 의회에서도 1948년 3월 5일 국방부와 군체계에 대한 1948년 제3호 법령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제붕쇄로 인하여 야기된 견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과 물자부족으로 경제부문에 있어 하타의 노력은 대체로 실패했고 레라프로그래머져 군의 강력한 반발로 그리 순조롭지 않았다. 축군 조치에 해당된 부대나 개인들은 군인이란 신분을 잃음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청년으로서의 특권도 사라지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더욱이 해군에서는 상기 제3호 법령에 따라 1948년 3월 17일 R 수비약또 중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군 해군재편위원회를 설치해 해군 1사단과 2사단을 통합육군으로 편성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무쏘(Musso)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 중엔 앗마지 부제독도 있었는데 그는 1945년 10월 5일 해양 BKR이 M. 빠드리 제독을 참모총장으로 하고 족자에 사령부를 둔 TKR 해군으로 재편할 때부터 실망을 표명해 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해군으로 근무해 왔지만 공화국이 해군을 비교적 홀대하는 것에 반발해 어느날 스스로 국민해양치안대(MKR)라는 것을 만들어 수라바야에 본부를 두고 그 부대장이 되었다. 물론 공화국 정부와 군수뇌부가 그렇게 막 나가는 일개 부대장을 그냥 놔둘 리 없었다. 그는 레라프로그래머에 의해 국방부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 이에 반발한 앗마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1948년 마디운의 공산당반란에 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한편 그즈음 국방부의 요직을 맡고 있던 좌익인사들 대부분이 퇴출되고 아미르 샤리푸딘이 1947년에 만든 무장청년군은 사령부 지시에 따라 정규군에 흡수되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무력기반을 잃은 좌익세력은 하타를 비난하며 이제 레라프로그래머의 집행을 방해하고 나섰다. 1948년 4월 레라프로그래머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동부자바에서 벌어졌고 1948년 5월에는 스노빠티 사단(육군 제4사단)도 레라 반대시위에 가담했다.

하타는 1948년 9월 2일 BP-KNIP 총회에서도 최적의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군병력감축은 계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1948년 10월 28일자 국방장관의 명령서에 따라 자바군 및 지역사령관(PTTD)인 A.H 나수티온 대령 휘하에 자바지휘본부(MBKD)가 설립되고 히다얏 대령 휘하에 수마트라 지휘본부(MBKS)가 구성됨으로써 정규군 육군에 대한 레라프로그래머는 어쨌든 완성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직전이었던 9월 중순 마디운사태가 벌어졌다.

아미르 샤리푸딘의 좌익연합이 인민민주전선이라고 개명하고 아미르 스스로가 서명했던 렌빌조약을 성토했던 중 1948년 8월 11일 인도네시아



마디운점령. 그리고 마디운광장에 몰려든 PKI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아미르 샤리푸딘

공산당 PKI의 1920년대 거물 지도자 무쏘가 소련에서 돌아왔다. 그는 중량감 넘치는 인물이었다. 아미르와 인민민주전선의 지도자들은 즉시 그의 권위를 받아들였고 스탈린주의적 공산당이란 노동계급의 단일정당이여야 한다는 무쏘의 사상에 동조하여 인민민주전선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좌익정당들이 스스로 해체하여 PKI에 합류했다. 9월 8일 무쏘가 족자에서 행한, 인도네시아가 소련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연설에 고무된 전국 공산주의자들은 산업운동과 시위에 그치지 않고 중부자바 수라카르타에선 PKI와 친정부세력이 공개적으로 맞붙어 전면전을 벌였고 동부자바 마디운 지역에서는 한 PKI 지지그룹이 전략적 거점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그 마디운에서 1948년 9월 18일 인도네시아 공산당(PKI)과 인도네시아 사회당(PSI)이 주축이 된 ‘인도네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성립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선포되었고 대통령에 무쏘를, 총리에 아미르 샤리푸딘이 추대되었다.

하지만 마디운사태는 계획에 없던 설익은 쿠데타였고 무쏘와 아미르에겐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자라난 결과였고 무쏘와 아미르, 그리고 다른 PKI 지도자들은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 즉시 마디운으로 출발했다. 물론 봉기의 성공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 쉽게

마디운행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옛날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독일과 싸우던 로마노프 왕가의 배후를 공격해 무너뜨린 소련의 붉은 혁명처럼 무쏘와 아미르는 네덜란드군과의 전쟁으로 군사적 역량이 소진되고 하타의 레라프로그램으로 공화국 병력규모가 획기적으로 감축된 이때가 공화국을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할 프롤레타리아 봉기의 적기라도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마디운을 일본과 미국의 노예인 수카르노와 하타에 대항하는 반란의 중심지로 삼아 전국의 공산주의자들을 쫓기시켜 동인도제도 전체에 거대한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족자에 남아있던 약 200명의 PKI 지지자들과 다른 좌익 지도자들이 바로 그 다음 날 체포되었고 수카르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마디운 반란군을 성토했다. 무쏘는 소련식 정부를 꿈꾸는 무쏘에 대항하여 자신과 하타를 따라 쫓기할 것을 촉구했다. 무쏘 역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등 승부수를 날렸지만 반덴과 수마트라의 인민민주전선이 자신들은 마디운 반란과 아무 상관도 없다며 슬며시 발을 빼면서 마디운반란은 이념봉기가 아닌 지역반란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무쏘와 아미르는 공산당의 역량을 과대평가하여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 다음 주에 들어서자 5천-1만 명으로 추정되는 PKI 병력이 있는 마디운으로 실리왕이 사단을 주력으로 한 친정부군이 진군해 들어갔다. 한때 아미르를 지지하는 무력세력의 한 축이라 여겼던 실리왕이 사단마저 공산주의자들의 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반군들은 동부자바 주지사 수리요를 비롯해 경찰관들과 종교지도자들, 마슈미당과 PNI당의 지도자들을 살해하면서 퇴각했고 인근 마을과 부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9월 30일 마침내 반란군은 마디운을 포기했고 정부군은 그들을 시골 깡촌까지 주축했다.

PKI의 주력은 마디운에서 둥우스(Dungus)라는 곳으로 후퇴하지만 이곳도 10월 1일 정부군에게 점령되자 무쏘는 아미르와 함께 제법 강력한 2개 대대병력을 데리고 회피기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투 중 주력부대로부터 나오한 무쏘는 달랑 두 명의 PKI 병사들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는 중간에 마주친 경찰관을 살해했고 또 다른 군인과 조우하자마자 사격을 가했으나 맞추지 못했다. 그는 도망치다가 10월 31일 스만딩이란 작은 마을의 한 옥외화장실에 숨어 정부군과 교전 중 사살되고 말았다. 인도네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을 꿈꾸었던 무쏘의 허망한 최후였다.

아미르는 좀 더 오래 버텼다. 그는 마디운과 둥우스를 거치면서 남은 반군 병력 300여 명과 함께 오랜 행군 끝에 뿌르위다디 지역 끝람부 외곽의 빼갓산 동굴로 스며들었다. 그곳은 천연요새와 같이 훌륭한 엄폐와 은폐를 제공했지만 숫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포위망을 좁혀오는 정부군에게 외곽경비부대가 11월 22일 항복했고 아미르 역시 다른 PKI 지도자들과 함께 11월 29일 동굴에서 나와 항복하여 꾸두스 소재 29여단 사령부로 압송됨으로써 마디운사태는 완전히 일단락된다. 이 사건으로 35,000명 정도가 체포되었고 사망한 사람들은 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독립과정과 독립전쟁 초기에 큰 족적을 남긴 아미르는 비록 그렇게 허접한 반란수괴가 되어 사라지기엔 아까운 인물이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처형위기에 몰렸던 그를 한 차례 구원해 주었던 수까르노는 어쩌면 이번에도 아미르의 목숨만은 살려볼 마음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황은 아미르에게 호의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12월 19일 네덜란드군은 크라이 작전라는 두 번째 대규모공세를 펼쳐 족자를 점령했고 수까르노 하타, 아구스살림, 그리고 샤리르를 포함한 공화국 정부 전체를 포로로 잡았다. 하지만 수디르만 장군이 이끄는 공화국군은 군사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간신히 족자를 탈출해 시골 지역으로 철수하여 반목라인의 양편 모두에서 본격적인 게릴라전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불과 한 달 반 전 마디운에서 철수하던 PKI 부대가 공화국 관료들과 포로들을 모두 학살했던 것처럼 정부군 역시 족자에서 퇴각하던 날, 아미르를 비롯해 포로로 잡혀있던 다른 좌익지도자들을 모두 총살해 버렸던 것이다.

한때 ‘정적조차도 미워하기 어려운 사람’ 이라고 묘사되었던 아미르 샤리푸딘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정부군이 마디운사태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을 일소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반식민정서에 기반해 대체로 인도네시아에게 동정적이었던 미국으로부터 보다 큰 외교적 지원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동서진영 사이의 냉전이 세계를 침식해 가던 당시,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소련 주도의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 자유진영의 동맹으로 삼을 만한 확고한 반공국가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2018년 1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도네시아 롬복섬 강진 4개월 지났는데...” 재건율 3.2% 불과”

56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롬복섬 강진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재건된 주택의 비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의 월름 램빵일레이 청장은 전날 롬복섬 마따람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재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진으로 무너진 주택을 재건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현재까지 1조5천억 루피아(약 1천200억원)를 투입했지만, 재건율이 3.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인 롬복섬에서는 지난 8월 5일 저녁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나 563명이 숨지고 건물 7만5천여채가 무너져 4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진 설계가 된 조립식 주택을 제공해 주민들이 지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공사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린 탓에 이재민 상당수는 여전히 텐트나 양철 지붕이 덮인 오두막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월름 청장은 “9월부터 재건이 시작됐지만,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가 착공한 조립식 주택은 2천424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136채만 완공됐다”면서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사업주택부 당국자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조립식 주택을 생산하는 업체 수를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조립식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공사 진척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롬복섬 일대에선 우기가 시작돼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적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편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 우기에는 강한 비가 계속 내린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롬복섬 등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산사태와 돌발성 홍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드위꼬리마 까르나와띠 BMKG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토의 77.4%가 우기에 들어갔다”면서 “특히 지진 발생 지역에선 산지 경사면이 불안정해져 산사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선, 인터넷 상에선 프라보워 후보가 우세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는 제1야당인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 당)의 프라보워 수비안또 총재의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선을 목표로 하는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의 교체를 요구하는 해시 태그 '#2019GantiPresiden'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서 사용된 횟수는 연초부터 지난 12월 5일 사이에 697만 건에 달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다루는 드론 엠프리트 퍼블리케이션스(Drone Emprit Publications)는 SNS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등 국내 인터넷 매체에서 사용된 대선 관련 해시 태그 건수를 조사했고, #2019GantiPresiden가 사용된 것은 트위터가 662만 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프라보워 총재와 부통령 후보의 산디아가 우노 전 자카르타특별주 부지사를 지지하는 '#2019PrabowoSandi' 는 154만 건, 이에 반해 조코위 대통령의 연임을 기대하는 '#2019TetapJokowi' 는 119만 건에 그쳤다.

17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론 엠프리트의 설립자인 이스마일씨는 "(이번 조사로) 여론 조사와 지지율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도 "해시 태그 사용이 확산되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월 6일~12월 6일 트위터에 게시물 중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01IndonesiaMaju' 가 사용된 게시물은 29만 건으로, 이 중 35%가 자동 발신 시스템을 사용한 게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니 정부, 파푸아 분리주의 반군 소탕 착수...분쟁격화 우려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주에서 국영건설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분리주의 반군과의 분쟁이 격화할 조짐이다.

6일 일간 콤포스 등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군은 이날까지 파푸아 주 은두가 리젠시(군·郡) 일대에서 시신 16구를 회수했다.

이 지역에선 지난 1일 분리주의 반군으로 보이는 괴한 수십명이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던 근로자들의 숙소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최소 19명이 묶인 상태에서 총에 맞거나 흉기에 숨통이 끊겨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현지매체는 사망자 수가 최소 24명에서 31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자는 “생존한 근로자 7명 등 15명을 구조해 대피시켰다. 현장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반군이) 총격을 가해, 군 장병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현지에선 근로자 한 명이 반군 대원들의 파푸아 독립기념일 행사를 우연히 목격하고 사진을 찍는 바람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파푸아 분리주의 단체들은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1961년 12월 1일을 매년 기념해 왔다.

서파푸아해방군(TPNPB)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 계정에는 이 단체가 피해자들을 살해



했다면서 배후를 자처하는 글이 올라왔다. 다만 이들은 사망자들이 건설근로자가 아니라 군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파푸아는 1969년 유엔 후원 아래 진행된 주민투표로 인도네시아 영토에 편입됐으나 분리주의 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면서 수십 년째 산발적인 무장독립 투쟁을 벌여왔다.

여기에는 파푸아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낙후한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파푸아 주 경제 개발과 분리주의 분쟁 종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5일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추적해 전원 체포하라고 군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은두가 지역에 군경 150여명을 투입해 생존자들을 찾는 한편 가해자들의 종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 부동산협회, 17개 개발업체 총 56안건에 해외 투자자 모집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는 지난 5일 발리에서 개막한 'FIABCI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 2018(FIABCI Global Business Summit 2018)'를 통해서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를 적극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은 12월5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웨스틴 리조트 누사두아 발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공주택과 국제관광 개발'(Affordable Housing and International Tourism Development)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각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와 더불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을 통해 인도네시아 개발 업체 17개사가 제시한 56안건의 사업비는 총 68조 루피아에 달한다.

REI 소속 인도네시아 기업 외에도 72개국에서 약 600명이 참가했다. 6일까지 21조 루피아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7일자 보도에 따르면 REI의 술라에만 협회장은 "최근 3년 동안 해외 투자자와의 협력 사업 중 실제로 진행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총액은 105조 루피아에 달했다"라고 말하며 "2019년에 대선이 있을 예정이지만 해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세계부동산연맹(FIABCI)은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국제 부동산 전문 연합기구이며 현재 전세계 67개국의 부동산 관련업자, 개발업자, 건설업자들이 모여 국제적 연대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FIABCI는 또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서 비정치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 자동차·섬유 등의 수출 강화 방침

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산업장관은 자동차, 섬유·섬유 제품, 화학,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을 표명했다.

현지 언론 안파라뉴스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내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시켜 나갈 목적이다. 아이르랑가 산업장관은 "생산량이 확대되는 산업의 수출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산업장관은 이어 "시멘트 산업은 국내 수요에 대한 생산 능력에 잉여분이 있다. 그것을 수출로 돌릴 수 있다"라며 "국내 시멘트 산업은 1억톤의 생산 능력이 있는 반면 국내 수요는 7,000만톤에 그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 무역 협정(FTA)과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CEPA)을 통한 여러 국가와의 파트너십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이달 체결된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과 CEPA 등을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8 상공인의 날



지난 12월 6일, 코참 회원사를 위한 ‘2018 상공인의 날’ 이 임페리얼 Golf Club에서 1부 골프대회, 2부 만찬으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송창근 회장은 “4차 혁명시대에 이기려면 경쟁보다는 Collaboration, 즉 융합하는 것이 낫다. 코참이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한인기업과 융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 상공회의소와의 융합에 그 요인이 있다” 고 하면서 “처음으로 친목을 위해 3개국 상공인이 함께 모인 자리를 마련했으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또한 환영사

에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상공인들의 노력과 자기발전에 감사한다” 고 인사를 전하였으며,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전조영 공사는 “한인 경제사회를 위해 코참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발한 활동을 부탁한다”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코참 회원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행사로, 코참 회원사, 미국상의 회장, 일본상의 회장 및 각 단체장을 포함하여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제공: 코참 사무국)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선수단 해단식

제 99회 전국체전에서 금2개(볼링 남2인조, 여 5인조) 은 3개(볼링 여2인조, 축구, 태권도 여-48kg) 동 5개(볼링 남5인조, 스쿼시 여, 태권도 남-58kg, 남-80kg, 남+80kg)로 17개 참가국 중 6위로 선전한 인도네시아 선수단이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12월20일 쉐라톤 자카르타(간다리아시티)호텔에서 전국체전 인도네시아 선수단과 그 관계자들, 양영연 한인회장, 김종민 총영사, 한인사회의 각 분야의 단체장 등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해단식은 이강현선수단장의 전국체전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선수 시상과 감사패 공로패 시상 순으로 이어졌다.

강희중회장은 “올해 체육회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관함동위원회에서 전 종목을 지원했고 우리 선수단의 경기마다 응원에 전력을 다했다. 10월초에 북한을 방문해 남북한 체육교류를 약속하고 돌아오니 느끼는 바가 크다”고 말하고 “건강한 한인동포들의 삶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양영연회장은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체육회의



솔 선하는 모습은 많은 단체에 모범이 되었고 감동을 주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종민총영사는 축사에서 “체육회특유의 단결력으로 올해 많은 활약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2부 순서로 JIKS 브라스밴드 공연과 선수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이 펼쳐지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즐겼다.

<시상내역>

- *금메달 수상자 상금 각 USD3,000 - 볼링 남성 2인조, 볼링 여성 5인조
- *아시안게임 표창패, 공로패 시상
 - 체육회장상 / 축구 / 전용무
 - 세총회장상 / 사무총장 / 방진학
 - 세총회장상 / 용무도 / 김태화
 - 세총회장상 / 야구협회장 / 이창균
- *최우수 선수상 - 볼링 조환국, 볼링 전인옥
- *최우수 지도자상 - 볼링 김송정, 축구 최문호
- *감사장 - 코린도 그룹 / 수출입 은행 / 황의상 대표





Le Quartier (세노빠띠)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을 맞아 여러분께 자카르타의 전설의 맛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Gunawarman에 위치한 Le Quartier는 기념일이나 모임장으로 유명한 곳으로, 프랑스 식당입니다. 은은한 조명과 샹들리에 장식이 어우러진 이곳은 어느 호텔식당 못지 않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오리고기가 토핑으로 올라간 Duck N Cheese Pizza (198,000루피아++)가 유명한데요. 반숙계란, 맛의 풍미를 더하는 초록색야채, 트러플 버섯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요리의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자를 식전 빵과 함께 나오는 발사믹소스와 올리브오일을 찍어먹으면, 피자도 도우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식당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분위기와 이 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곳은 맛과 분위기 모두를 만족시키는 곳입니다.





피자 못지않게 맛으로 감동을 주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paghetti Bottarga(248,000루피아++)인데요. 일명 붕골레 파스타라 불리죠. 붕골레 파스타 안에 들어간 조개와 조개 안에서 나오는 육즙이 면발과 어우러져, 조개와 파스타의 환상적 궁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붕골레 파스타를 좋아해 직접 요리하기도 하고 적지 않은 식당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개의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면발과 조개가 함께 맛을 내는 이 식당의 붕골레는 저에게 맛의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외에도 Beetroot Salad(146,000루피아++)도 저의 단골메뉴 중 하나입니다. 식전에 먹으면 입맛을 돋아주고, 피자과 파스타와 함께 곁들여 먹기에 딱입니다!

새해 연초를 전설의 맛집과 함께 시작하는 것 어떠세요? 후회하지 않으실거예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1. 종류 : French, Western
 2. 주소 : Jl. Gunawarman No. 34
Senopati, Jakarta Selatan
 3. 전화번호 : 021-7278-8001
 4. 가격대 : Rp 600,000 (2인 기준)
- *Zomato 참고



김 재 구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Kwilliam67@gmail.com

요즈음 나는 아내를 ‘동지(同志)’ 라고 부르고 싶어 졌다. 아내를 동지라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갑자기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것이다. ‘동지’ 라는 말에는 원래 좋은 의미가 담겨있다. 같은 뜻이나 목적을 공유하는 친한 사람들 간에 쓰는 호칭이다. 꼭 정치적인 뜻이나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쓰이는 말은 아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삶의 목적을 향해 간다면 못 쓸 말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시는 말이다 보니 자기 부인에게 쓴다면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쓰면 듣는 사람이 다소 어색하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사실 아내와 나는 동지라는 말이 무척이나 호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 사이였다. 1998년에 결혼을 하였는데, 그 전에는 몰랐다. 결혼 전에 나에게 시집을 선물하기에 시와 문학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이를 인연으로 우리는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오산이었다. 아내는 글 읽기는 좋아하는데 창작은 아주 힘들어 했다. 오히려 나는 아주 썸 병인 수학에는 거의 신기에 가까운 실력을 아내는 가지고 있다. 숫자에 밝아서 미국에서 통계학 박사까지 땀다. 그런데 나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았다. 사과를 살 때도 나는 자주 서너 개 혹은 대 여섯 개 사라고 하지만, “정확히 몇 개를 말하는 것이냐” 라고 되묻는 아내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다.

인니 돈을 숫자로 쓸 때는 꼭 마침표를 숫자 3개 마다 찍어줘야 한다.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점을 안 찍으면 아내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싫은 내색을 곧 바로 낸다. 결혼하고 산지 이제 거의 20여년인데 살면서 서로 다른 점만 계속 발견되어지고 도대체 같은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나와 다르게 아주 고집도 세고 일하

는데 추진력도 좋고 주의주장도 강한 편이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에 관한한 일단 누구하고 봐도 경쟁이다 하면 아내는 결코 지지를 않는다. 휘경 여고에서 전교 일등도 마음만 먹으면 했다고 했다. 경쟁이 없으면 재미도 못 느끼고 성적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반면에 나는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여리고 주의 주장이 강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꺾는 것도 행복하지 않다. 누가 나와 경쟁해서 나에게 지기라도 하면 내가 더 가슴이 아프고 불편하다. 주로 명령을 듣고 행하거나 경쟁에서 지는 편이 마음이 더 놓이고 편할 때가 있다. 차를 몰고 갈 때도 아내는 어지간하면 길을 잃어도 다른 이에게 길을 묻지를 않는다. 백화점에서 어떤 상점을 찾을 때에도 기어코 혼자 생각을 해 내서 원하는 곳을 찾아 낸다. 나는 길을 잃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들에게 묻는다.

늘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주변에 도우미가 없으면 나는 삶이 아주 불편해지고 두렵기까지 한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도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크게 불편해 하지도 않고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혼자 풀어나가는 것을 즐기는 것도 같다. 특히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내는 Google과 YouTube를 살살이 뒤져서 혼자 문제를 풀어낸다. 나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아내를 찾아 간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의존도가 크고 아내는 나에게 대한 의존도가 아주 작다. 특히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 사용과 그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 아내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일들이다. 활용도가 엄청나다. 하지만 내게 있어 컴퓨터는 워드-타자 기능과 이메일 보내는 정도다. 핸드폰도 카톡이나 와챗 정도 하는 것이 아주 큰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엑셀프로그램이나 Google Docs의 사용을 하려면 나는 자주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잔소리도 엄청 들어가면서... 특히 부동

산이나 월부로 뭔가를 사고 팔고 하려면 나는 아내가 없으면 돈 계산이 잘 안돼서 하기가 어렵다. 혼자 하기라도 하면 반드시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이자율이나 숫자에 관계되는 것들은 도무지 내 적성에 맞지를 않는다. 숫자에 강한 아내가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내의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나는 힘이 든 적이 많았다. 아내의 그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성격이 우리 사이에 갈등과 반목을 생기게 할 때도 많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았다. 2005년 경 여름에 한번은 우리가 미국의 플로리다 주 펜서콜라 해변에서 피서를 한 일이 있었다. 2박3일 일정의 1박은 미숫가루처럼 고운 해변가의 모래를 밟고 맑은 하늘을 마시고, 맑은 물에 더위를 식히고 바베큐를 해 먹고 하루를 아들과 함께 온 식구가 아주 잘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National Naval Aviation Museum에서 비행기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스마트폰도 대중화되어 있지 못했고 GPS는 더욱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다.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계산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그렇게 주로 목적지에 다다른곤 했다. 그때는 그래서 나의 임무가 아주 중요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운전은 주로 아내가 했다. 그런데 비행기 박물관이 초행이다 보니 아내가 길을 찾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였다. 나는 차 안에서 지도를 펼치고 면밀히 지도를 살피고 뒤 자석에 앉아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런 협조적인 차 안 분위기와 좋은 날씨에 세 식구의 기쁨이 아주 충만하였다. 중간에 내려서 사 먹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맛도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다. 그런데 차가 박물관 근처에 다다랐을 때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직진이고 하나는 우회전을 해 가야 했다. 나는 직진을 외쳤다. 그런데 우회전 길의 전봇대 위에서 아내는 “National Naval Aviation Museum”이라는 낯말을 발견한 것이었다. 아내는 완전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나의 “직진”이라는 말은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고 악셀을 엄청 밟고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니야 그리로 가면 안돼, 직진 해야 돼!” 또 한번 외쳤지만 차 안에서 공허하게 메아리 쳐 울릴 뿐. 아내는 그 말에 콧방귀만 끼고 차를 몰았다. 차는 하염없이 달렸다. 이미 30분이 지났는데 입구는 보이지 않았다. 가끔 좁은 길로 통하는 문들이 보였지만 내려서 가보면 단단히 열쇠로 잠겨 있었다. 아마도 박물관의 뒷문이 아니었나 싶다. 비행기 박물관의 크기는 아마도 서울 시나 부산 시 만하지 않았나 싶다. 가도가도 정문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마음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싹터 오르고 그 감정을 추스르느라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야 했다. 30 분이나 더 달리고 나니까 박물관의 정문이 멀리서 보였다. 우회전 한 곳에서 직진만했어도 10분이면 정문에 다다를 텐데... 나는 입에 고여 드는 침이 그토록 쓴 맛이 날 수 있는지 혼치 않는 경험을 했다.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박물관 견학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박물관 정문에서 차 머리를 왔던 길로 다시 우회전을 하는 것이었다. 왔던 길은 증명된 길이고 아직도 좌회전 길은 미지의 길이라는 이유였다. 이런 식의 오래 동안의 반복과 갈등으로 우리의 결혼생활은 적잖이 삐걱거렸다. 우리 사이에 세월만이 약이었다. 세월은 어찌된 건지 미움의 모든 기억들을 점차 희석시키고 조금씩 그것을 침식해 갔다. 2011년에 나는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없어서 인도네시아로 아들과 함께 왔다. 그 때 아내는 홀로 루이지애나에 남아 박사 학위 공부를 마저 마치기로 하였다.

식구들과 다시 합칠 날 만을 고대하며 끼니도 잘 챙겨 먹지 않고 잠도 잘 못 자면서 학위를 기어코 마치고야 말았다. 그 대단한 고집으로 그녀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만 것이었다. 마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좋은 직장을 잡으라는 조언도 다 무시하고 또 마다하고 남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날아왔다. 많은 친구들이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들 그녀를 고집쟁이라 하였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 무리를 한 탓이었는지 몹쓸 병을 얻게 되었다. 이 때문에 수술도 받고 지난 5-6년간 방사선 치료와 화학 치료도 받고 크고 작은 병치레로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다. 독한 약의 부작용으로 발톱들이 빠져서 피가 나고 걷지 못하는 모습이 측은 하기도 하였다. 거친 세월의 파도와 비바람은 아내의 고집스럽고 까칠하기까지 한 성격도 조금씩 무디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컴퓨터를 보다가. “내 눈이 이상해, 글들이 왜 이리 흐리지?” 하는 것이었다. 내게는 안경만 벗으면 늘 상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아내는 한 며칠을 얼굴에 걱정이 한 가득 담겨 있었다. 아내는 병원에 가서 안과 의사를 만나고 노안이라는 말을 듣고 한 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또 한 편으로는 믿을 수 없다며 다소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의사에게서 안경을 써야 한다는 판정을 받고 온 것이다. 아내의 눈의 시력은 그녀의 자랑 가운데 하나였다. 안경이라는 것은 그녀의 삶에 낄 자리가 없는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었다. 안경 없이도 수 십년을 아무 불편하지 않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안경을 껴야 한다고 풀이 좀 죽었다. 나는 50을 넘어 살아오면서 늘 상 눈이 안 좋아 안경 없이 살아온 적이 없다. 안경을 끼면 겨울에 라면 먹을 때 김이 서려 참 불편하다. 옷을 입고 벗을 때도 모르고 안경을 벗지 않으면 옷과 얼굴 사이에 끼어서 안경이 휘기도 하고 얼굴을 치기도 한다. 세수를 할 때도 벗어야 하는 안경은 없



으면 안되는 참 불편한 물건이다. 그런데 일년 전부터 나는 안경을 써도 보이지 않는 글들이 많아져 힘들어 졌다. 오히려 안경을 벗어야 가까운 글자가 보이는 것이다.

핸드폰에 있는 깨알 같은 글을 읽으려면 나는 오히려 안경을 머리 위에 걸어 올려 부쳐 놓고 읽는 한다.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와서 그렇다고 주위분들이 이야기를 해준다. 나는 안경 앞에 돋보기가 부분적으로 박혀 있는 멀티안경을 구입하였다. 필요해도 불편한 안경같은 물건을 아내도 나처럼 써야한 다니 내 마음이 조금 안되었다는 마음이 들었다. 며칠 전 BSD시에 있는 이온 백화점에 함

께 가서 아내는 돋보기 안경을 하나 샀다. 초록색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투명한 뿔 테 안경이었다. 안경을 끼니까 아내가 많이 달라 보였다. 오히려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기까지 했다. 어는 날 컴퓨터를 하는 데 들어서 안경을 끼고 똑같은 맥 컴퓨터를 보면서 안경을 서로 끼고 열심히 뭔가를 컴퓨터로 읽다가 나는 한 가지 깨달았다. 아내는 이제 나의 동지 같다고. 이름하여 “안경 동지” 아니겠냐고. 나는 너털웃음을 혼자서 곁곁 웃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며 아내와 함께 안경동지로 인생의 동지로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대박 한국어학원장 박경재
gurubahasakorea@gmail.com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한인 여러분!

이번회에서는 지난회에 이어 접두사 “me-”와 접미사 “-kan, -i”와 결합하는 단어 중에 기본 어근의 뜻이 상이하게 변하는 단어를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난회의 중요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면 “me-” 접두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공식적인 표현을 만들거나 기본 어근이 명사일 경우 명사를 동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어근이 형용사일 경우는 “me-”와 결합해 상태 변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어근이 동사일 경우는 목적어를 가지면서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근의 첫 글자에 따라 “me-, men-, mem-, meng- menge-”와 같이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me-” 동사이지만 목적어를 가지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단어는 그 단어 스스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거나 목적어가 필요없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첫째, 기본 어근이 형용사일 때와 둘째, 그 이외의 예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회를 요약한 내용이고 예외적으로 접두사 “me-” 및 접미사 “-kan, -i”와 결합했을 때 기본 어근의 뜻이 상이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어 단어 중에 하나는 ‘tinggal’입니다. 이 단어를 인도네시아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11가지나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뜻은 동사 ‘살다’로 ‘저는 자카르타에 삽니다’라고 했을 때 ‘Saya tinggal di Jakarta’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접두사 “me-”와 결합하면 ‘meninggal’, 즉 ‘돌아가시다’로 뜻이 바뀝니다. 또한 ‘meninggalkan’과 같은 경우 ‘떠나다, 남겨두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eninggal’ 처럼 ‘살다’ 라는 단어가 완전히 반대의 뜻으로 바뀌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활, 문화, 역사, 사상 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돌아가시다’ 라는 단어는 “죽으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라는 한국인의 인식이나 사상에서 비롯된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죽는다’ 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이 다하면 다른 곳에서도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tinggal’ 이라는 단어에 인도네시아인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 자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생활 습관과 방식, 전반적인 인식 체계에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me-, -kan, -i” 등과 결합해 뜻이 달라지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alam ; mengalami

‘alam’ 은 ‘자연’ 인데 이 단어에 ‘me-’ 와 ‘-i’ 가 붙어 ‘경험하다’ 하는 새로운 뜻을 만들어 내는데 이 또한 인도네시아인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2. lamun ; melamun

‘lamun’ 은 고어인데 아주 옛날에는 ‘그러나’ 또는 ‘비록 ~이지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namun’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미낭까바우어 (Bahasa Minangkabau, 빠당음식으로 유명한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도네시아어의 모태가 되는 언어)로 현대 인도네시아어에서도 사용하는데 ‘멍하니 있다’ , 요즘 말로 ‘멍때리다’ 입니다.

3. radang ; meradang

‘radang’ 은 이전 칼럼에서 병 이름을 알아볼 때 나왔던 단어인데 ‘염증’ 입니다. 이것이 ‘meradang’ 이 되면 ‘열이 나고 붓고 고름이 나오다’ 라는 뜻도 가지지만 일상 생활에서 매우 화가 났을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나다’ 를 표현할 때 ‘meradang’ 이 쓰입니다.

4. sandang ; menyandang

‘sandang’ 은 본래 ‘옷감’ 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menyandang’ 이 되면 ‘어깨에 짊어지다’ 또는 ‘병을 앓거나 고통을 겪다’ 로 뜻이 바뀝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은 옷감들을 짊어지고 나르는 일을 하다보니 그런 모습을 보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병이 생기거나 고통을 겪는 상황이 있을거라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5. mati ; mematikan

‘mati’ 는 생명체가 숨을 다한다는 의미인 ‘죽다’ 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앞서 언급한 ‘meninggal’ 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mematikan’ 이 되면 ‘살해하다’ 또는 ‘불을 끄다’ 로 의미가 변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어컨이나 컴퓨터, 전등 등 모든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 ‘mematikan’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gelar ; menggelar

‘gelar’ 를 인도네시아어 사전에서 찾으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명사로 ‘학위’ 와 동사로 ‘돛자리나 명석 따위를 펼치다’ 인데 이 어휘가 확장되어 ‘menggelar’ 로 쓰이면 ‘사람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다’ 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랑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7. jorok ; menjorok

보통 ‘더럽다’ 를 ‘kotor’ 로 사용하지만 jorok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남까파우어에서는 ‘jorok’ 이 동사로 ‘돌출되다’ , ‘튀어나오다’ 로 쓰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어에서도 똑같이 의미로 사용됩니다.

8. cek (수표) : mengecek (확인하다)

‘수표’ 를 뜻하는 ‘cek’ 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하다’ 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은행에 가면 ‘cek’ 은 수표를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check’ 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쓰는 것과 똑같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9. jamu (뿌리나 잎사귀 등으로 만든 약) ; menjamu (대접하다)

인도네시아 전통 약의 한 종류로 jamu 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나 잎사귀 등으로 만든 것인데 이를 jamu라는 단어로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amu는 인도네시아어 사전에서 찾으면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하나가 약, 또 다른 하나가 손님입니다. 그래서 menjamu로 쓰일 때는 (손님을) 대접하다라는 뜻으로 바꿉니다.

정리해보면 한 단어에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있는 반면에 표기는 같지만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me-’ 를 붙여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어가 가지는 뜻이 여러 개라도 상황에 따라 ‘me-’ 를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으니 항상 사용하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칼럼을 시작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글을 쓸 때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로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어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라기 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 즉 한국 스타일을 토대로 그대로 직역해서 말하거나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인도네시아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이나 단어를 고르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름’ 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생활 환경, 습관, 사고 방식 등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언어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 중에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표현, 말 한마디를 조금더 생각해보고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할까? 왜 이런 단어를 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바로 거기서부터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칼럼 애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한인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토스 보물의 집, 그리고 시공간 여행

박범진 (UGM 박사과정,
제 9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우수상 수상)

인간 세상에서 살던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루마자와(Rumah Jawa) 투어는 시작부터 끝까지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2016년에 인도네시아로 와서 욱야카르타 가자마다 대학교에서의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한 지 2년차가 되던 해,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주최한 ‘제 9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에 공모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장학금을 받으며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졸업 후 인도네시아 창업을 계획 중인 이야기가 독특했는지 한인기업상이라는 멋진 상을 주셨고, 이를 계기로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족자카르타에서 대학원의 일상을 이어가던 중, KOTRA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

발되어 자카르타로 다시 입성했다. 5일 동안의 자카르타 창업 교육이 끝나고 발리 창업 교육으로 넘어가기 직전,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귀한 장소로 문화탐방을 떠난다는 소식을 받았다. 목적지는 사공경 원장님께서 예전부터 알고 있던 희귀한 장소이며 평소에는 그룹이 아니면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료도 비싼 편이라고 했다.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방문이 제한되는 곳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마침 몇 년에 한번 정도 있는 특별한 오픈하우스라 20명의 탐방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발리 행 비행기를 5시간 앞두고 아침부터 서둘러 숙소를 나와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한 루마자와로 향했다. 호그와트 마법 학교로의 여행은 여기서 부터 시작이다.

미지의 장소는 3미터 높이의 시꺼먼 철판으로 굳게 닫힌 입구를 보며 과연 이곳이 귀한 문화재가 가득한 그곳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킹스 크로스 역 9와 3/4번 승강장인 돌 벽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해리포터와 같은 무모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루마자와의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린 순간부터 일상은 뒤로하고 다른 차원의 세계로 순간 이동하는 짜릿한 여행이 시작된다.

이곳은 개인 박물관으로 자바의 조글로 양식 전통주택이었다. 저택의 주인인 산토스(SANTOS) 부부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해외로 저렴한 가격에 팔려나간 인도네시아 유물을 고국으로 들여왔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를 수집하였다. 그는 박물관을 운영하며 오지탐험 여행을 주관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겐 저렴한 골동품이 가치를 알아보는 이에겐 귀중품이 된다. 나는 그의 안목을 느껴보기 위해서 사진 찍는 것도 포기하고 투어 내내 산토스 박물관 관장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설명에 집중했다. 그는 문화재의 역사와 가치 뿐만 아니라 발견한 당시의 상황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해맑은 표정으로 신이나 설명하는 산토스 관장을 보고 있으니 그는 단순한 골동품이 수집가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문화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장인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벽에 걸려 있는 바딕 앞에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 바딕 중간 중간에 왜 구멍이 나있는지 물어왔다. 마치 담배 불씨가 떨어져서 구멍이 난 듯 한 곳을 덧천으로 덧대어 놓았다. 대대로 제사에 사용되는 이 바딕은 천의 일부를 불에 태워 향을 피워 올림으로써 신과 교감하는데 사용되었다. 산토스 관장은 서슴지 않고 손으로 만져 보라고 권한다. 바딕은 본래가 사람의 손을 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만져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제사장이 신께 올렸던 바딕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루마자와의 매력이다. 이외에도 전쟁용 창과 방패, 조각상, 그림, 가면 등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건너 온 직물이 어떻게 인도네시아 바딕 문양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쯤 되면 루마자와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장소인지 궁금해서 안달이 날 법하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직접 체험하기를 권한다. 어차피 눈으로 보기 전에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묘사나 사진으로 시공간 여행의 감동을 빼앗아 버리는 스포일러가 되고 싶지 않다. 다행히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내년 초에 루마자와 투어를 다시 한 번 준비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직접 체험해보시길 희망한다.



맛보기로 한 가지만 누설하자면, 루마자와를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비유한 이유가 있다. 단순히 문화재가 많아서가 아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에 끝없이 이어지는 42개의 방.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은 오로지 24개 뿐. 이 또한 하루 만에 다 볼 수도 없으며 방마다 서로 다른 콘셉트로 각기 다른 지역의 유물을 전시해 두니 방을 옮길 때마다 시공간을 오가는 체험이 된다.



파푸아 지역의 아스맛 부족 방안에는 파푸아 족이 실제로 사용했던 창과 방패가 진열되어 있었다. 한 부족 전체가 사용했을 규모와 위압감이 상당하다. 루마자와를 지키는 호위 부대가 매서운 눈초리로 방문객을 검문하듯 서 있으니, 까딱 잘못했다간 쫓겨날까 싶어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갔다. 이 정도면 호그와트 마법 학

교처럼 신비롭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자카르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크지 않아서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문화탐방의 기회를 접하기 매우 어렵다. 첫 문화탐방의 경험을 제공해주신 한인니문화연구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치려고 한다.



KOICA 인도네시아, 2018 귀국연수생 총동창회 연례모임 개최

동창생들의 연수 경험 및 성과 공유, 상호교류의 장 마련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12월 21일(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웨스틴 자카르타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귀국연수생들의 활동 및 교류 증진을 위한 귀국연수생 총동창회 연례모임을 개최하였다.

금번 동창회에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관 김창범 대사와 KOICA 인도네시아 정희진 사무소장, 김세진 부소장 및 귀국연수생 80여 명, KOICA 사무소 직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92년 최초 조직된 귀국 연수생 총동창회(IAKI)는 연수생들의 연례 정기 모임으로 KOICA 초청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창생들의 연수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교류의 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동창회에서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IAKI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우호관계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고, 앞으로도 연수프로그램 및 동창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으로 나뉜 KOICA 귀국연수생들이 토크쇼에 참가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이번 동창회를 통해 KOICA 연수과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호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학생들의 한국문화공연과 인도네시아 전통춤 등 다양한 공연으로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자아냈다.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0여 명에 이르는 연수 참여자들을 지원하였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연수 과정을 마친 동창생들이 귀국 이후 현업에서도 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동창회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동창회가 인적자원의 허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조각해가는 사람들

글: 이태복 시인

즈빠라 한인회(문창윤회장)는 12월6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바띠알릿 야외 광장에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2018년 연말 사무총회 및 Korean food festival 그리고 Jeparo K-pop festival을 열고 한인회 송년의밤 행사를 가졌다.

한인 서른 여명과 현지인 500여명이 참석 제5대 김신 신임 한인회장을 추대하고 한식 페스티벌을 열어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150여명에게 선물과 음식을 전달하고 저빠라의 경찰과 군인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을 초청,한식과 인니 음식으로 풍성한 만찬을 가지고 2부에서는 가수들을 초청 공연을 하면서 지역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눴다.

여느 지역 한인회에서 볼 수 없었던 현지인들과 한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상생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즈빠라 한인회는 이뿐만 아니었다. 며칠전 행사장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한인회관 신축 기공식을 하고 이어지는 축제의 연장선이였다.

즈빠라 한인회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이색 문화의 담을 허물어 마음을 열고 공감 소통 비전 나눔으로 정보 공유는 물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신 해 온 아름다운 사례다.

즈빠라 한인회 리더자들과 조력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런 결실을 맺어가는 숨은 조력자들을 자세히 스케치 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 한민족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코리아 디아스포라는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따뜻한 DNA로 어느곳에서도

원주민들과 오감으로 소통 공감하며 모범적으로 상생 하며 결실을 맺어가는 사례들을 보고있다.

필자가 조각가구의 도시 즈빠라와 인연을 맺게 된것은 2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즈빠라의 한인은 필자를 비롯 다섯명이였다.그시절 만대 가구와 노송가구로 연계된 두분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장용덕사장 그리고 그시절에 20대 초반 미혼의 몸으로 와서 순전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지금은 중년이 된 분,현재 필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현재 즈빠라에 모범적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21년만에 필자가 다시 방문한 5년전에는 그시절에 비해 글로벌 시대 경쟁력으로 열악해 가는 국내 사정에 따라 해외 생산의출구를 찾아 이곳 즈빠라를 찾아 진출한 가구업 오너 70여분이 공장을 건설하여 아름답고 견고한 가구들을 생산 로컬과 세계시장에 팔고 있었다. 장족의 발전이였다.



불과 몇년전부터 인도네시아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자카르타 위성도시인 JABODETABEK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신발과 의류 가방 제조업들이 증부자바로 진출하며 현재 즈빠라 한인들은 300명을 넘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즈빠라 한인회는 1995년 부터 한인회란 이름으로 모이다가 2003년 첫 발족 되었다.

즈빠라 한인들은 처음부터 가구 생산이란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한인회가 형성된 곳이다.

이런 공통된 분모속에 살아 온 한인들은 끈끈한 구심점속에 한인회의 초기는 조직을 변변히 갖추지 못했지만 이들은 이후로도 골프 모임을 통해 커뮤니티를 지속해 오다가 2012년 양재형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한인회 조직을 갖추고 2대 문창윤 회장으로 이어지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겨나는 다문화 가정들의 한글 교육을 위해 문교부로 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한글 학교를 설립하며 3대 박상규회장 4대 문창윤회장으로 재임하며 초기부터 열정적으로 헌신해 온 박수옥 사장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저빠라 한인들이 꿈꾸어 온 한인회관 건립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즈빠라 한인회 회장은 임기가 2년이였다. 회칙을 수정하고 2019년 새로이 시작되는 한인회장은 임기를 3년으로 회칙을 개정하며 5대 회장으로는 40대의 김신 회장을 만장 일치로 추대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인회로 발빠르게 변신하며 즈빠라 한인회는 장족의 발전으로 모범적 한인회의 바람직한 상을 이루어냈다.

무엇보다 즈빠라 한인들은 휴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음이 따뜻하여 서로 배려하고 글로벌 시대 주재국 현지인들과도 순전한 마음을 열고 혁신과 공감 소통 비전 나눔 공유를 하는 휴먼 한인회다.

지역 한인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들로 인니 한인회 최초로 한인회관 건립을 시작했다.

지난 12월 2일 2065m2의 대지 위해 1차로 연면적 544m2의 회관 기공식을 했다. 1층은 한글 학교와 숙소 2층은 한인 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현재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이일을 위해 양세환 차기 부회장을 비롯 많은 분들이 매일 현장을 나와 봉사하며 건축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





2차로는 뒷편에 배드민턴과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도 지을 예정이다.

한글학교 운영은 조용성 교장이 한인회 사무총장을 겸임하며 봉사하고 있다.

이곳 한글 학교는 한글 교육은 멀리 살라띠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고 현재 학생수는 남19명 여11명 총30명이라고 한다. 이 외에 한글 교육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에게도 이루어 지고 있다.

즈빠라 한인회는 다문화가정이 열일곱 가정이다. 이들 다문화 가정은 결손없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원래 열 여덟 가정이었으나 고 장용덕님의 결손가정을 한인들이 협력하여 생계를 위해 십시일반 후원하여 식당을 열어 주었으나 실패하여 현재는 직장을 알선해 주고 초등5학년인 장성구군을 지원하며 생일때 마다 잊지 않고 케익을 마련해 주는 등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

한인회관을 건립하기 까지 문창윤 회장은 스스로 후원은 물론 즈빠라에 진출해 있는 봉제 신발 가방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꿈을 나눴다.

PT. Star cam의 김주철 대표, PT.HSK의 강호성 대표, PT.성신, 중부 발전소(LPTU) 이어 화승 나이키의 (김광현 법인장)후원과 후속으로 파크랜드외 많은 업체들이 후원을 약속한 상태다.



즈빠라 한인회의 미래는 밝다.

다문화라는것이 말그대로 서로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르지만 불협과 불통의 함수가 될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보완하는 온전한 조력자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다른것을 틀리다 하는 외통수 의식이 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서로 존중하며 이루어 낸 보완해낸 결실이다.

특히 한인회관을 지으면서 허가 부터 건축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모든 행정에 부인들이 가교 역할을 하여 열일곱 다문화 가정의 커뮤니티가 현지 관계 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내고 성원속에 착착 이루어져 가는것은 즈빠라 한인들의 순전한 열매라는데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즈빠라 한인회가 한인회관을 짓고 모범적다문화 가정 상을 보여 준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근시적으로는 이를 통해 다문화가 가정과 사업이 다문화 가정 자녀로 인해 성공하여 멘토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많은 인재들이 쏟아 지기를 기원하며 성원을 보낸다.

“기업시민, 무엇을 할 것인가?”

제 1부 『길이 없을 때 우리는...』



글: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이순형사무총장

프롤로그 : 바닷길 약 5,000킬로미터를 돌아 도착한 항구

한 밤 중의 바다 위,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별빛이 쏟아져 내린다. 그래도 감탄사는 한 시간이면 충분했다.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무렵, 선장이 나에게 말을 건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지점이 쓰나미가 처음 발생한 곳입니다”

육지와 불과 26마일 떨어진 곳. 약 41.8km.

저 멀리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시작점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다. ‘설마 우리가 넘어가는 그 순간, 또 다른 여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 기분이 묘했다. 선장은 말을 이어 나갔다.

“우리가 아시끼에서 합판 싣고 나올 때 이쪽 항로를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저 뾰토로안 항구 쪽에 불빛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빛은 하나도 안보이죠?”

그곳에 불을 밝히고 오고 가는 배에 인사를 건네던 그 항구가 이제 칠흑같이 어두웠다. 아마 항구에 기대어 살던 수많은 사람들, 그의 가족들은

이미 희생됐거나 살아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한시바삐 항구에 정박해야 했다.

내가 탄 배는 6천 톤 급 화물선으로 약 5천 킬로미터를 돌아 술라웨시 동갈라 동쪽 뾰토로안 항구에 도착할 계획이었다. 5천 킬로 미터면 ‘사방에서 머라우께’ 까지 인도네시아 영토의 끝과 끝을 연결한 직선거리 5,200킬로미터와 맞먹는 거리다. 이 배는 어딜 그렇게 돌고 돌아 왔을까.

우리 회사 합판 공장들이 있는 파푸아 아시끼를 거쳐 중부 깔리만탄의 빵갈란분, 마지막으로 동부 깔리만탄의 발릭빠빰을 거치며 수집한 총 112,120장의 합판을 싣고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술라웨시까지 가는 길이였다.

뻔히 보이는 위치까지 왔지만 우리는 정박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기다려야 했다. 오랜 시간 뱃멀미에 시달리며 달려온 것보다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다. 문득 이런 자연재해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는 마음보다 앞선 것은 ‘마음이 아프다’ 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세월에 따라 돕는 이 보단 도움을 받을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슬픔보다는 도울 수 있어 뿌듯함이 컸던 게 사실이다. 우리 회사의 제일 처음도 그랬다.

우리 코린도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한 것은 1969년. 처음엔 인니동화라는 이름으로 낯선 나라에서 회사를 차리는 것도, 동부 깔리만탄의 발릭빠빰 지역에 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수령이 몇 년인지 짐작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높은 나무들로 뻗뻗한 밀림은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이 없을 때 원하는 곳에 닿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길을 닦는 것이다.



코린도 아시끼병원



대낮에도 우거진 수풀 때문에 태양빛이 지표에 닿지 않아 어두웠던 그 태고의 자연에 사람이 다니고, 장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냈다. 산중에 임도(林道)가 나면서 그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땅과 하늘, 그리고 숲 밖에는 없었던 그곳에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첫째, 밀림에 들어가 일을 할 우리 직원들이었고, 그 다음엔 직원들의 가족들이 몰려들었다. 대부분 그 생산현장에서 먹고 자고 일해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숙소가 마련되면서 생긴 일이다. 세 번째는 상권은커녕 마을도 없던 곳에 돈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시작한 인근 주민들이다. 인근이라고 해 봐야 베이스캠프가 있던 지역이고, 그렇게 밀림은 세상과 이어지게 됐던 것이다. 당시 밀림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던 주민들은 대부분 정처 없이 떠돌며 마음에 드는 곳에 불을 놓고 농사를 짓다 떠나고 또 다시 화전을 일구기를 반복하던 화전민들이었다. 그들이 또 다른 삶의 방식과 지속적인 터전을 가꾸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길이 나면서부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도 길을 만들어 주었다. 순조롭게 원목개발을 하면서 얻은 자신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뛰어들게 해줬던 것이다. 우리가 처음 합판 공장을 시작하기 위해 중부 깔리만탄 빵깔란분에 처음 들어간 선발대의 임무는 공장부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호텔은커녕 여인숙 같은 숙박시설 하나 없던 깡촌에 선발대가 임시 거처로 사용한 것은 한 주민의 집. 똥똥한 아들 하나를 둔 그는 낯선 한국 사람들에게 호기심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대했고, 며칠 그곳에 기거하면서 그 곳보다 나은 임시 사무소 자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결국 공장을 다 지을 때까지 우리가 빌렸던 그 집은 우리 사무실로 사용했다. 그리고 집 주인의 영리한 아들은 우리 사무실의 오피스 보이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본격적으로 합판 공장이 가동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구 규모의 코린도 타운이 형성됐다. 공장 직원들의 숫자가 몇 백 단위가 되자 사실, 제일 시급한 것은 학교와 사원이었다. 부모를 따라 온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지방 교육청에 학교 설립을 요청했다가 예산 문제로 거절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지어줄 테니 운영을 해달라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교육청을 설득했다. 결국 학교 운영자금과 교사 월급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 인·허가를 받았다.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가 생기자 직원 자녀 외에도 인근 마을 주민 자녀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 이전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맨발로 걸어서 학교를 다니던 주민들의 아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 학교가 생기니 지역에 활기가 넘쳤다. 일자리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슬금슬금 사람들이 계속 유입됐다. 조용하던 깡촌의 왁자지껄한 모습에 우리도 무척 뿌듯했던 시절이었다.

그 중에서 유난히 나의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들의 오피스 보이다. 똥똥똥한 표정으로 우리의 심부름을 곧잘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영리한 소년의 아버지는 늘 아들의 우수한 학업 성적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도 그런 소년을 무척 귀여워하고 이따금씩 소년의 상여금 형식으로 학비를 대신 내주곤 했다. 그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때마다 우리는 그 소년의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마침내 중부 깔리만탄의 우등생 소년은 청운의 꿈을 품고 자카르타로 갔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소년은 코린도의 지원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 소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제는 지극한 중년의 사나이가 된 그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그때부터 교육 지원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다. 어린 오피스 보이의



팔루 합판 하역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면서 보람과 동시에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치 통행이 불편한 곳에 잘 닦은 길을 완공한 사람의 심정이 이렇까 싶은 기분이었다.

사실 우리가 직원 자녀를 위해 설립한 학교와 사원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때도 어떤 목적의식, 기대효과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 요즘은기업의이런 행위를사회공헌활동,CSC(Corporate Social Contribution)라고 분류한다.

CSC란 아무런 대가 없이 기업의 이윤을 되돌려 주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연말연시의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기업의 임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자선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이나 학교, 복지관, 종교시설을 짓는 등의 기초생활권을 지원하는 일들이 주를 이룬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초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나눔과 성장의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서 코린도 장학재단을 세운 것은 1997년의 일이다. 다른 무엇보다 낙후된 인도네시아의 환경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교육 지원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

다. 인도네시아 고급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의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첫 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한 해 50여명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론 졸업 때까지 일정 정도의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이 붙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전 세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그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재단을 설립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 대열에 한국인 기업으로 우리 코린도가 최초로 합류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나라에 기여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던 기억이 난다.

재단 설립을 마치고 장학생 선발과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협력계약을 맺으려던 찰나,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겼다. 바로 IMF였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코린도 장학재단 사업이 암초에 부딪힐 위기였다. 당시 외환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외에는 동결 또는 삭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해, 코린도 장학재단 회의실에선 긴박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이었을까.

(2부에 계속)

2018 한인 색소폰 동호회 송년 콘서트

글: 학생기자 JIKS송원경

2018년 12월 16일, 자카르타 꼬망 리뽀몰 BBQ KOREA Restaurant에서 ‘2018 한인 색소폰 동호회 송년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대부분 나의 부모님 뺄 되시는 분들께서 식당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고, 식당 한 구석에서는 금빛 번쩍이는 색소폰을 들고 계신 멋진 아저씨들이 연주 연습을 하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호회 송년 콘서트는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 되었으며, 약 20개 정도 되는 다양한 곡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공연은 전체 합주를 시작으로 김송안(엘토), 김주철(엘토), 최병우(테너), 이강용(엘토), 박의태, 김창식(테너), 이상일(엘토), 김우재(테너), 김덕기(엘토), 강희중(테너) 순으로 진행 되었다. 많은 연주자중 유일하게 콧수염이 있으시고

선글라스를 끼셨던 분은 ‘콧수염이 있으면 색소폰을 잘 분다’는 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대 실력을 보여주셨으며, 동호회 내 최고령자이신 김우재(테너)님은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한 화려한 연주실력을 선보이셨다. 중간 중간 스페셜 게스트들이 등장하여 멋진 노래 실력과 춤사위를 보여주시기도 하였는데, 엄청난 노래실력을 선보인 익명의 한 분이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모든 연주가 막바지로 흘러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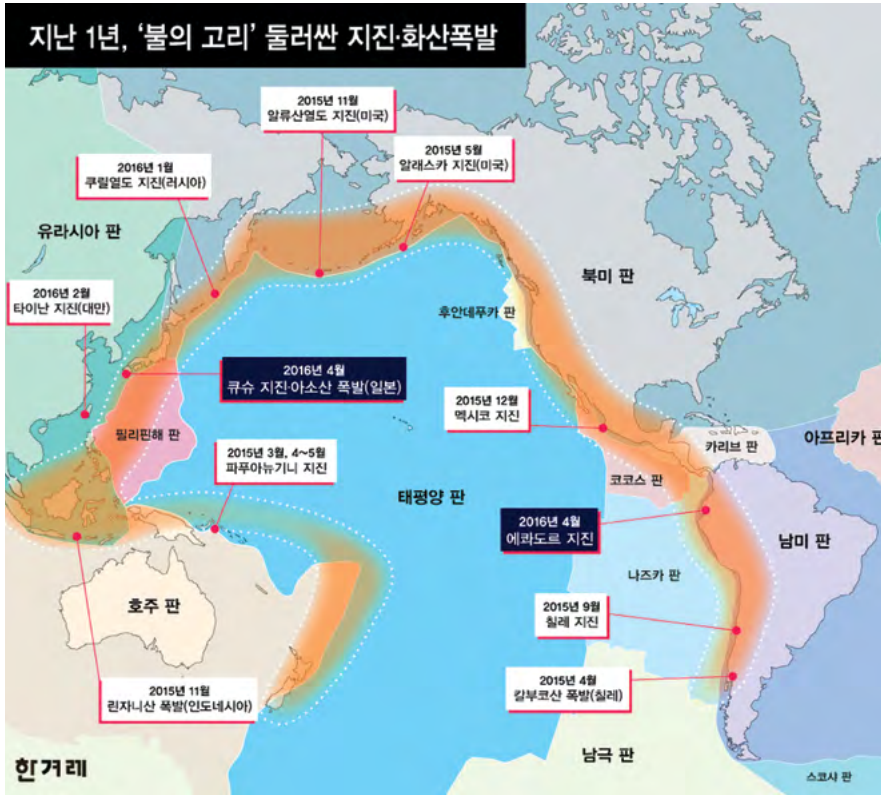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그분들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수 밖에 없었다. 피아노도 기타도 한달 만에 포기해버린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했고, 그분들의 대단한 열정과 노력에 존경스러워졌다. 우리 아빠가 작은 콧수염을 붙이고 금색 빛의 색소폰과 함께 멋있게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인도네시아: 환태평양 지대, 불의 고리



(학생기자 JIS 한영진)



지구의 지각판 중 가장 큰 판인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판, 북아메리카판, 인도판 그리고 호주판과 충돌하는 경계선이다. 이런 특징과 함께 환태평양 지대는 지각 활동이 활발하다. 끊임 없이 변동되는 지각으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환태평양 지대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다. 2015년도에는 칠레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했고 2017

년도에는 멕시코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했다. 불의고리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들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26일에 수마트라섬에 부딪힌 30미터의 쓰나미와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을 덮친 쓰나미가 있다. 이 사건들로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는 22만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2011년에 일본에는 2만여명의 인명피해와 33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2004년에 수마트라섬은 36미터를 움직였고 2011년에 일본은 2.4미터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환태평양 지진지대, 불의 고리에 주변에 위치한 나라에 매년 자연재해 발생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활동 중인 화산들이 많아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 방재청은 대비책을 고안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가 재난 방재청은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 30조 루피아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년도인 2018년에는 총 6건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이는 환태평양 지진지대에 인도네시아가 위치해 있기에 발생하는 일로 볼 수 있다. 이 환태평양 지대는 불의 고리 지역으로 불리는데, 이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아시아 일부 지역부터 남미까지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화산대이며

인도네시아 회사법 (15)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7.21. 감사회(Dewan Komisaris)

7.21.1. 감사회는 회사 및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고 이사회에게 조언을 주는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회의 인원은 감사 1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나 사회의 돈을 모아 운용하거나 회사 채권을 발행하거나 상장법인의 감사회의 최소 인원은 2명 이상이다. 감사회원의 인원은 홀수 인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짝수 인원 시 가부 동수 발생으로 회사업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트너 간 분쟁 발생 시 회사 업무 중단 사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7.21..2. 감사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 1인 개별적으로 직무 수행을 금하며 반드시 감사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감사회의 명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21..3. 이슬람법에 근거하여 샤리아 원칙으로 경영되는 회사는 감사회 이외에 샤리아 감사회를 뒤야한다. 주주총회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 평의회에 의하여 1명 혹은 그 이상의 샤리아 전문가를 샤리아 감사회의 회원으로 선임한다. 샤리아 감사회는 이사회가 샤리아 원칙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도록 이사회에게 조언하고 이사회가 샤리아 원칙대로 회사를 경영하는가를 감독한다.

7.21.4. 피선임 전 5년 기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파산선고에 책임이 있는 자 혹은 금융 범죄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죄로 형을 받았던 자는 감사회원으로 피선 자격이 없다.

7.21.5. 감사회원에 대한 선임, 교체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21.6. 감사회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7.21.7. 전체 감사회원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전체 감사회원이 연대책임을 저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21.7.1. 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7.21.7.2. 손실을 가져온 이사회에 경영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감사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7.21.7.3. 손실 발생 예방 혹은 손실 계속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한 경우

7.21.8. 감사회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 시 총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해당 이사회원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21.9. 회사에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으며 파산 선고 발생 이유가 감사회원의 회사경영에 대한 감독 직무 수행에 잘못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감사회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로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21.9.1. 파산 선고 발생에 감사회원의 잘못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7.21.9.2.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독을 한 경우

7.21.9.3. 파산을 초래시킨 이사회 경영 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감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7.21.9.4. 파산 선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에게 필요한 조언을 사전에 해준 경우

7.21.10. 정관에 대주주, 이사회원 혹은 다른 감사회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1인 혹은 그 이상의 독립 감사와 1인의 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둘 수 있다. 독립 감사 및 대리 감사에 대한 선임권 및 직무 범위 지정권은 주주총회에 있다.

7.21.11. 감사회는 회하에 감사회원 1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회계 감사위원회, 급여 위원회 혹은 인사 추천 위원회 등 감사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감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감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원에 대한 임시 해임권이 있습니다.

합작회사의 감사회원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주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 감사회가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7.22. 합병. 통합. 인수. 분리

7.22.1. 합병(Penggabungan)이란 한 개 혹은 한 개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신을 흡수시켜 흡수되는 회사의 모든 자산이 흡수하는 회사의 자산이 되며 흡수하는 회사는 계속 존재하나 흡수되는 회사는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7.22.2. 통합(Peleburan)이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한 개 회사를 만들어 구 회사들의 모든 자산이 신 회사의 자산으로 되며 구 회사들은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7.22.3. 인수(Pengambilalihan)란 자연인 혹은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초래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17.4. 분리(Pemisahan)란 한 회사가 전 자산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게 그냥 넘겨주거나 자산의 일부를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게 그냥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사업을 분리시키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7.22.5. 합병을 계획하는 양측 회사의 이사회는 각자 합병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자의 감사회, 주주총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합병을 실시한다.

7.22.6. 합병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22.6.1. 각 회사의 상호 및 주소

7.22.6.2. 합병 추진 이유 및 합병 조건



- 7.22.6.3. 흡수를 받는 회사의 주식 가액에 대한 흡수되는 회사의 주식 가액 산정 방법
- 7.22.6.4. 흡수를 받는 회사의 정관 개정안(필요시)
- 7.22.6.5.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의 지난 3년간 재무보고서
- 7.22.6.6.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사업 계속 혹은 중단 계획서
- 7.22.6.7. 인도네시아 일반회계원칙에 의거 작성된 흡수를 받는 회사의 Proforma 재무제표
- 7.22.6.8. 흡수되는 회사의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근로자의 신분, 권리 및 의무 처리방법
- 7.22.6.9. 흡수되는 회사의 제삼자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처리 방법
- 7.22.6.10. 합병을 반대하는 흡수되는 회사의 주주의 권리 처리 문제
- 7.22.6.11. 흡수를 받는 회사의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성명, 급여액 및 수당
- 7.22.6.12. 합병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 7.22.6.13.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현황, 발전상황 및 실적
- 7.22.6.14.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주 활동 및 합병 회계연도에 발생한 변화
- 7.22.6.15. 합병 회계연도 기간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설명서

- 7.22.7.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에 참여하는 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 계획을 요약하여 아무리 늦어도 주주총회 소집 30일 전에 한 개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7.22.8.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신문 공고 일자로부터 늦어도 14 일 이내에 반대 의사를 이사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상기 시한 14 일 이내에 이사회에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4일 이내에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접수되고 이사회가 채권을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자의 반대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해결하도록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주주총회에서 해결될 때까지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를 실시할 수 없다.
- 7.22.9.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합병, 통합, 인수 혹은 분리 계획은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17.10. 분리는 순수 분리와 비순수 분리로 구분한다. 2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게 전체 자산을 넘겨주는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를 분리를 순수 분리라 하며, 자산의 일부를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게 넘겨주는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를 비순수 분리라고 한다.

(다음 호에 계속)

INTERVIEW
DI JALAN



NO. 1

P
a
n
c
o
r
a
n

사
람
들

2018. 12

Arip (45세) 거리 미싱사(Penjahit jalanan)

안녕하세요?

나는 이곳에 자리 잡은지 한 10년 되었구요.
가족은 부인과 자식 넷에 예~쁜 첫 손주를 얼마 전 봤어요.

여기 오기 전 제 고향 까라왕 인근 중국 봉제공장에서 10년 미싱공으로 일했는데
직장 생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길래 독립해서 그늘 밑에서 일하니 살것 같아요.

매일 9시에서 5시까지 일하고요. 비오는 날은 할 수 없이 쉽니다.
하루 15만루피아 정도 버는데 그럭저럭 살아요. 주말에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나의 꿈은 우리 자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 같이 살지 말고 좋은 기술자나
선생님 되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방학에 쉬어도 월급 다 받던데요. 하하하 ~

<편집부>

2018년 11월3일 재인니한인스트링오케스트라 KISO 정기 연주회 - STRING FESTIVAL



재인니한인스트링오케스트라 KISO가 11월3일 제5회 정기연주회 (STRING FESTIVAL) 를 개최하였다.

KISO의 2명의 대표 첼리스트 허민경과 바이올리스트 허진경을 필두로 전 연령대의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답게 어린이 오케스트라의 퍼포먼스 연주로 시작해서 첼로양상블, 바이올린과 비올라 양상블, 스트링 양상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독주등의 다채로운 현악기의 음악을 들

려주었다. 마지막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깊은 여운과 인상을 남기며 마무리 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쓰나미와 지진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을 돕기 위한 자선 전시가 있는 공연이었다.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특별히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이루어졌다. 전 EBS아나운서 양수려님과 미스 파푸아 Ellen의 사회로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또한 신현미 대사사모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함께 하였다. 음악과 해설이 어우러진 이번 연주를 통해 모아진 모금액은 한인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적십자로 전해져 인도네시아에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된다.



12월 18일 한인회로 성금을 전달한 허민경, 허진경자매

(사회자 의상 협찬 : willmich collection)
악기를 배우거나 경험이 있는 교민이라면 함께 이런 연주기회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

(연주 문의 : 카카오톡429min, 인스타그램:kiso_kiso_orchestra)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지난 12월 12일 오전 11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2018년 제20회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을 차지한 문인기님의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양영연 한인회 회장, 이은주 문인협회 부회장, 이태복 문인협 사무국장, 그리고 대사관 실무관들이 축하해 주는 가운데 김종민 총영사께서 시상하였다. 재외 동포 재단으로 부터 수여된 상패와 상금 300만원(2,650US\$)을 받은 문인기님은 수상한 자리에서 상금을 3등분하여 한국문인협회 인니 지부와 인도네시아의 불우한 이웃 나환자 돌봄시설과 인디아의 신학생 1년 등록금 후원 외 또다른 특별한 다른 한가지 목적으로 쓰이도록 전달하였다. 그는 중부 자바 살라띠가에서 현지인을 섬기는 선교사로 조선 성노예 위안부 수용소 암바라와를 방문하고 쓴 “유적의 꽃” 으로 제20회 재외 동포 문학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 했다.

그는 소감에서 살라띠가에서 알게 된 이태복 시인이 “적도 문학상” 응모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우수상을 받고 연이어 재외 동포 문학상 대상을 받은데 대해 이 태복 시인과 한국 문인협회 인니 지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안식년으로 인도에 있는 자녀의집에 쉬면서 시를 쓰고 있다고 한다.

6개월 후 다시 인도네시아에 오면 다윗처럼 노년에 시를 쓰는 꿈을 꾸면서 시로써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소망을 숨기지 않았다.

재외동포 시상식은 연례 행사로 연초 대사관 신년 하례식에 시상하지만 대사관에서 문인기 시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인니 방문에 맞추어 김종민 총영사의 주재로 한인회 사무실에서 조출하게 했다.

글/한국 문인협회 인니지부 이은주 부회장



한인회는 문인기님의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상금중 USD 1,000(후원성금)를 헤븐스 멤버스에 전달하였다(12월 20일)

2018 임원 산조금 납부 명단

(기준: 2018.2.2~12.31)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		납입연도
				루피아	달러	
1	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270,000,000		
2	명예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000	
3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72,000,000		
4	명예고문	배상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72,000,000		
5	명예고문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67,500,000		
6	고문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72,000,000		
7	고문	신만기	PT. PARKLAND WORLD	67,500,000		
8	고문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67,500,000		
9	수석부회장	김주철	PT. STAR CAMTEX	135,700,000		
10	수석부회장	박미례	한인회 여성분과	144,923,079		
11	수석부회장	박재한	JAVA PALACE HOTEL		10,000	
12	수석부회장	전민식	PT. POWERTECH INDONESIA	135,000,000		
13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	68,000,000		
14	부회장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15	부회장	김재윤	PT. KUNYOUNG INDONESIA	67,500,000		
16	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72,000,000		
17	부회장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67,500,000		
18	부회장	김희년	PT. AITI INVESTMENT	67,500,000		
19	부회장	박태용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67,500,000		
20	부회장	손한평	PT. DONGSON INDUSTRY	67,500,000		
21	부회장	신규태	PT. INDO SUNGIL JAYA	67,500,000		
22	부회장	안윤근	PT. YONGWOO INTERNATIONAL	67,500,000		
23	부회장	이승원	PT. NEO HYOLIM	72,000,000		
24	부회장	이호덕	PT. VICTOR JAYA RAYA	67,500,000		
25	부회장	이화수	BANK KEB HANA INDONESIA	67,500,000		
26	부회장	조현보	PT. KOMITRANDO-EMPORIO	67,500,000		2017
27	부회장	조현보	PT. KOMITRANDO-EMPORIO	65,000,000		
28	부회장	최덕열	PT. SHINTA WOO SUNG		5,000	
29	부회장	홍춘식	PT. SENG DAM JAYA ABADI	67,500,000		
30	부회장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72,000,000		
31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7,202,000		
32	자문위원	강덕재	PT. LEMBU SWANA PERKASA		1,000	
33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14,400,000		
34	자문위원	김문환	PT. KASINDO GLOBAL UTAMA	13,500,000		
35	자문위원	김병철	PT. MISUNG INDONESIA	27,900,000		2017~2018
36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X	13,500,000		
37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3,500,000		
38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13,500,000		
39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40	자문위원	박현식	PT. DONGAN KREASI INDO		1,000	
41	자문위원	배응식	PT. KORSIA BOAN PERKASA		2,000	2017~2018

42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3,500,000		
43	자문위원	송광종	PT.MOTONIC INDOPART	14,500,000		
44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3,500,000		
45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13,500,000		
46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4,400,000		
47	자문위원	이진수	PT. SUNGBO JAYA	14,400,000		
48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14,400,000		
49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3,500,000		
50	자문위원	정무웅			1,000	
51	자문위원	최병우	PT. ANEKA PANEL INDONESIA	14,500,000		
52	자문위원	최정남	PT. GLOBAL FIBERINDO	14,400,000		
53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 TAMA	13,500,000		
54	자문위원	현상범	PT. INAMEN JAYA		1,000	
55	이사	강형구	PT. MERITZ	27,900,000		2017~2018
56	이사	고영철	PT. SHIN KWANG WORLDINDO	13,500,000		
57	이사	곽봉규	PT. FOODSTAR GLOBAL	14,400,000		
58	이사	권희정	PT. SAMICK INDONESIA	13,500,000		
59	이사	길병완	PT. DAEYONG DUNIA SUBUR	13,500,000		
60	이사	김경근	PT. SUKWANG INDONESIA	13,500,000		
61	이사	김경국	PT. HANASTAR DAKARA	14,400,000		
62	이사	김문수	PT. QUTY KARUNIA	14,400,000		
63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TOUR	14,500,000		
64	이사	김서경	PT. ACCENTUATES	14,500,000		
65	이사	김 석	PT. TAESENGINDO ABADI	27,000,000		2017~2018
66	이사	김선영		14,492,307		
67	이사	김송정	PT. UNICON INDO MESIN	14,500,000		
68	이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13,500,000		
69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4,500,000		
70	이사	김육찬	PT. NISSI GROUP	14,400,000		
71	이사	김일태	PT. OROM INDONESIA		1,000	
72	이사	김중성	PT. LAW FIRM INDOYANG & PARTNERS	14,400,000		
73	이사	김종희	PT. YOUNG JIN INDONESIA		2,000	2017~2018
74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13,500,000		
75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3,500,000		
76	이사	박기현	KOREAN AIRLINES	13,500,000		
77	이사	방진학	PT. HANSUNG INDOTAMA WORLD	14,400,000		
78	이사	배재호	PT. SERIM INDONESIA	13,500,000		
79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3,500,000		
80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13,500,000		
81	이사	성예식	PT. F1-LOGIX	14,500,000		
82	이사	성예식	PT. F1 LOGIX	28,956,000		2016~2017

83	이사	손 용	PT. CJ INDONESIA	13,500,000		
84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13,500,000		
85	이사	승범수	PT. KORINDO GROUP	14,500,000		
86	이사	신호진	PT. SAUDARA UTAMA INTL.	13,500,000		
87	이사	안선근	PT. UIN UNIVERSITY	13,500,000		
88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4,500,000		
89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4,400,000		
90	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3,500,000		
91	이사	오세명	PT. SUNGLIM CHEMICAL	13,500,000		
92	이사	오영란	RESTAURANT ARANG 22	14,492,307		
93	이사	유주완	PT. FEEL BUY INDONESIA	13,500,000		
94	이사	윤태현	PT. DREAM SENTOSA	14,500,000		
95	이사	이강현	PT. SAMSUNG ELECTRONICS IND.	14,500,000		
96	이사	이기영	PT. FITI INDONESIA	13,500,000		
97	이사	이상득	PT. IL JIN CHEMICAL		1,000	
98	이사	이상일	PT. UIB	13,500,000		
99	이사	이세호	PT. GORI GLOBAL INDONESIA	14,500,000		
100	이사	이소왕	PT. DOOWANG INDONESIA		1,000	
101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4,400,000		
102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4,500,000		
103	이사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13,500,000		
104	이사	이주한	PT. MEDISON JAYA RAYA	13,500,000		
105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4,400,000		
106	이사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13,500,000		
107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3,500,000		
108	이사	이태복	PT. DUNIA TIMUR	13,500,000		
109	이사	이태복	PT. DUNIA TIMUR		1,000	
110	이사	임덕진	PT. MIWON INDONESIA	14,400,000		
111	이사	임동진	PT. INKO SINAR MEDIA	13,500,000		
112	이사	임성필	PT. LSP INDONESIA	27,900,000		2017~2018
113	이사	임진섭	PT. ALIMINDO		1,000	
114	이사	장윤하	PT. HARINDO	14,478,000		
115	이사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27,000,000		2017~2018
116	이사	정제의	PT. CHANDRA KOSMETIK INDONESIA	14,400,000		
117	이사	정현옥		14,492,307		
118	이사	조호신	PT. NEMO INDONESIA	14,400,000		
119	이사	최원혁	PT. HILON FELT	14,500,000		
120	이사	표기훈	PT. HIT	14,500,000		
121	이사	홍기호	PT. AURORA INT'L CO.	13,500,000		
122	이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4,500,000		
123	*무기명 납부			13,800,000		3월 15일, 우리은행
총 금액				3,424,036,000	54,000	

2018년 안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납부 명단

※ 기준: 납부일 순

번호	성명	금액(IDR)
1	김영실	300,000
2	이선형	300,000
3	강희중	300,000
4	임수지	300,000
5	전정우	300,000
6	김애순	300,000
7	이원만	300,000
8	문상은	300,000
9	김교은	300,000
10	류근수	300,000
11	이현용	300,000
12	김희진	300,000
13	김재훈	300,000
14	권영순	300,000
15	최성현	300,000
16	오은선	300,000
17	김순희	300,000
18	정은아	300,000
19	윤승욱	300,000
20	길병완	300,000
21	김일태	300,000
22	이소왕	300,000
23	김교윤	300,000
24	오세윤	300,000
25	정무용	300,000
26	최우호	300,000
27	조연숙	300,000
28	임성필	300,000
29	강덕재	300,000
30	김희익	300,000
31	승지나	300,000
32	양영연	300,000
33	최인실	300,000
34	홍석영	300,000
35	김영욱	300,000
36	김영주	300,000
37	오세명	300,000
38	석웅치	300,000
39	서영률	300,000
40	엄정호	300,000
41	이주한	300,000

42	신만기	300,000
43	김경곤	300,000
44	양태화	300,000
45	손용	300,000
46	이정휴	300,000
47	이상득	300,000
48	김준규	300,000
49	박태용	300,000
50	이상일	300,000
51	김재윤	300,000
52	김호권	300,000
53	임동진	300,000
54	김영만	300,000
55	손한평	300,000
56	김희년	300,000
57	권희정	300,000
58	신규태	300,000
59	김석	300,000
60	김주철	300,000
61	하연수	300,000
62	김문환	300,000
63	김영섭	300,000
64	구종율	300,000
65	이지현	300,000
66	이승민	300,000
67	태영호	300,000
68	서미숙	300,000
69	구본식	300,000
70	임경미	300,000
71	이태복	300,000
72	박재한	300,000
73	김종면	300,000
74	백인현	300,000
75	이호덕	300,000
76	이철훈	300,000
77	정용완	600,000
78	김희순	300,000
79	홍인화	300,000
80	신기엽	300,000
81	신호진	300,000
82	노예범	300,000
83	이완주	300,000

84	한상식	300,000
85	최진	300,000
86	NO NAME	300,000
87	김민영	300,000
88	NO NAME	300,000
89	김성진	300,000
90	송재선	300,000
91	김우진	300,000
92	황의상	300,000
93	이진수	300,000
94	정사무엘	300,000
95	현상범	300,000
96	김문수	300,000
97	안주영	300,000
98	조우희	300,000
99	이은영	300,000
100	박영미	300,000
101	김영휘	300,000
102	김우재	300,000
103	김종헌	300,000
104	최순규	300,000
105	김동일	300,000
106	이승원	300,000
107	전민식	900,000
108	최병우	900,000
109	송창근	900,000
110	이강현	600,000
111	신만기	300,000
112	안윤근	300,000
113	방진학	600,000
114	조규철	600,000
115	김태화	600,000
116	김종희	300,000
117	승은호	300,000
118	승범수	600,000
119	홍종서	600,000
120	이정휴	300,000
121	김서경	600,000
122	송광종	300,000
123	김영주	300,000
124	권희정	300,000
125	고영철	300,000

126	성 예 식	300,000
127	양 태 화	300,000
128	홍 기 호	600,000
129	유 주 완	600,000
130	최 원 혁	600,000
131	이 현 상	301,000
132	김 석	300,000
133	안 창 섭	600,000
134	배 도 운	600,000
135	배 재 호	600,000
136	김 경 곤	300,000
137	강 호 성	600,000
138	김 종 성	600,000
139	안 선 근	600,000
140	노 예 범	300,000
141	김 문 수	300,000
142	이 세 호	600,000
143	곽 봉 규	600,000
144	김 욱 찬	600,000
145	김 민 규	600,000

146	김 병 철	600,000
147	최 정 남	600,000
148	김 영 섭	300,000
149	이 승 원	300,000
150	이 화 수	600,000
151	송 판 원	600,000
152	이 중 현	600,000
153	정 제 의	300,000
154	최 덕 열	600,000
155	이 지 현	300,000
156	양 시 완	600,000
157	손 용	300,000
158	이 진 수	300,000
159	표 기 훈	600,000
160	조 현 보	600,000
161	이 욱 찬	300,000
162	윤 태 현	600,000
163	박 기 현	600,000
164	이 상 득	300,000
165	김 송 정	600,000

166	이 완 주	300,000
167	김 선 영	600,000
168	임 성 필	600,000
169	이 진 호	600,000
170	이 지 완	600,000
171	배 상 경	600,000
172	백 인 현	300,000
173	강 형 구	600,000
174	오 영 란	600,000
175	김 경 국	600,000
176	임 덕 진	600,000
177	배 응 식	300,000
178	조 호 신	600,000
179	성 예 식	300,000
180	이 기 영	300,000
181	최 지 영	300,000
182	KOREA TELECOM	300,000
183	정 선	900,000
184	박 미 례	600,000

룸복 지진 피해 성금

번호	성명 / 회사명	금액(IDR)
1	양 영 연	30,000,000
2	PT. TAEWON INDONESIA	10,000,000
3	PT. BOSUNG INDONESIA	10,000,000
4	신 동 수	30,000,000
5	PT. YOUNGLIM	5,000,000
6	NO NAME	200,000
7	안 창 섭	5,000,000
8	박 용 상	5,000,000
9	PT. KHARIS RAYA SATU	5,000,000
10	김 주 철	10,000,000
11	PT. FNC INDONESIA	2,000,000
12	김 준 규	25,000,000
13	신 기 업	10,000,000
14	한 바 패	5,000,000
15	한인회 사무국	3,000,000
125	고 영 철	300,000
126	성 예 식	300,000
127	양 태 화	300,000

128	홍 기 호	600,000
129	유 주 완	600,000
130	최 원 혁	600,000
131	이 현 상	301,000
132	김 석	300,000
133	안 창 섭	600,000
134	배 도 운	600,000
135	배 재 호	600,000
136	김 경 곤	300,000
137	강 호 성	600,000
138	김 종 성	600,000
139	안 선 근	600,000
140	노 예 범	300,000
141	김 문 수	300,000
142	이 세 호	600,000
143	곽 봉 규	600,000
144	김 욱 찬	600,000
145	김 민 규	600,000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솔라웨시 발루 재난구호 성금모금

기준 : 2018.10.1 ~ 12.31

번호	날짜	성명 / 회사명	금액	
			USD	(Rp.)
1	01-10-18	강덕재 (Kang Duck Jai) / PT. LSP		50,000,000
2	04-10-18	김주형 (Kim Joo Hyeong)		2,000,000
3	04-10-18	고경아 (Go Gyoung Ah)		300,000
4	04-10-18	이보화 (Lee Bo Hwa)		500,000
5	05-10-18	장효지 (Hyo Ji Jang)		500,000
6	05-10-18	안환혁 (Ahn Hwan Hyuk)		500,000
7	05-10-18	PT. Keumkwang Semyu Indonesia		2,000,000
8	05-10-18	PT. Cipta Orion Metal		200,000,000
9	05-10-18	윤만권 (Man Kwon Yoon)		1,000,000
10	05-10-18	김호권 (Kim Ho Kwon) / PT. SUNSHINET TECHNICA		10,000,000
11	05-10-18	박충달 (Park Choong Dal)		200,000
12	05-10-18	길병완 (Byong Wan Kil)		100,000,000
13	05-10-18	PT. Feel Buy		5,000,000
14	05-10-18	조영완 (Cho Young Wan)		500,000
15	05-10-18	전가은 (Jeon Ga Eun)		500,000
16	05-10-18	전서호 (Jeon Seo Ho)		500,000
17	05-10-18	김영희 (Young Hee Kim)		100,000
18	05-10-18	박근혜 (Geun Hye Park)		1,000,000
19	05-10-18	박우영 (Park Woo Young)		300,000
20	05-10-18	신동수 (Dong Soo Shin)		30,000,000
21	05-10-18	No Name		1,000,000
22	05-10-18	No Name		1,000,000
23	08-10-18	신기엽 (Shin Kee Yup)		20,000,000
24	08-10-18	양윤정 (Yang Yun Jung)		1,000,000
25	08-10-18	스마랑 한인회 (Korea Asosiasi Semarang)		50,000,000
26	08-10-18	김학순 (Kim Hak Soon)		300,000
27	09-10-18	PT. Zimmoah Marine		10,000,000
28	09-10-18	Venus Spa Karawaci		3,000,000
29	09-10-18	이종근 (Lee Jong Geun) / Kodeco Energy Co. Ltd.		10,000,000
30	09-10-18	No Name		665,000
31	10-10-18	Tangerang Hangari		3,600,000
32	10-10-18	송민주 (Song Min Ju)		500,000
33	10-10-18	송판원 (Song Pan Won)		10,000,000
34	10-10-18	조민기 (Cho Min Ki)		500,000
35	10-10-18	PT. Dayup Indonesia		10,000,000
36	10-10-18	유병선 (Byeong Sun You)		3,000,000
37	10-10-18	대구광역시	10,000	
38	12-10-18	PT. Younglim		30,000,000
39	12-10-18	김예형 (Kim Ye Hyung)		500,000
40	12-10-18	김영애 (Kim Young Ae)		1,000,000

41	12-10-18	PT. Sadua Indo		3,000,000
42	15-10-18	조인재 (Cho In Je) / (주)케이알선박엔지니어링		10,000,000
43	18-10-18	엄정호 (Aum Jung Hoo) / PT. ING International		40,000,000
44	19-10-18	2018 APG 대한민국 선수단	4,000	
45	22-10-18	수라바야 한인회 (Korea Asosiasi Surabaya)		40,000,000
		이봉운		500,000
		PT. CORT		10,000,000
		김덕수		1,000,000
		이상재		1,000,000
		김수용		10,000,000
		권익수, 권규을, 권가음		1,000,000
		김순주		300,000
		박종복		300,000
		이상조		1,500,000
		박인수		1,000,000
		정민교		1,000,000
		황석현		5,000,000
		최성갑		2,000,000
		김영호		1,000,000
박은영, 유의준		1,000,000		
배춘식 / PT. MAPA		3,400,000		
46	22-10-18	족자 한인회 (Korea Asosiasi Yogya)		170,000,000
		배석기		30,000,000
		박병엽 / PT. Oriental Seed Indonesia		30,000,000
		김영율 / PT. Sung Chang Indonesia		30,000,000
		김동선 / PT. Eagle Glove Indonesia		30,000,000
		이종철 / PT. Hung A Indonesia		10,000,000
		박헌두 / PT. H J Glove Indonesia		10,000,000
		조용재 / Bornga Resto Yogyakarta & Chimac		20,000,000
		주장원 / PT. Alam Green Wood		10,000,000
47	23-10-18	정민수 (Jeong Min Soo)		1,000,000
48	26-10-18	PT. Jin Young		20,000,000
49	29-10-18	우리컨설팅 (Woori Consulting)		20,000,000
50	30-10-18	장애인아시아게임코리아하우스		7,000,000
52	02/11/18	김주형 (Kim Joo Hyeong)		2,000,000
53	02/11/18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10,000,000
54	02/11/18	즈파라 한인회 (Korea Asosiasi Jepara)		26,000,000
55	12/11/18	문예총예술제 한지공예(김경애) 판매수익금 기부		10,000,000
56	01/11/18	PT. Samwon Heavy Industries Co.Ltd.	49,995	
57	19/12/18	재인니한인오케스트라(KISO)		8,030,000
58	20/12/18	KOCHAM		65,550,000
총 모금액			63,995	993,545,000



57회 열린강좌

이인성교수와 함께하는 특별 세미나

지구의 뜨거운 숨결과 맥박, 화산과 지진이야기

- ① 뜨거운 용암: 지구상에는 많은 화산들이 존재한다. 베수비오 화산과 같은 폭발적인 재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와이의 화산들처럼 붉은 용암이 바다로 흘러드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세계의 유명한 화산들이 생성되는 과정과 차이점들을 비교하고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려한다
- ② 움직이는 지구: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활동은 화산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에서 그 원인과 지질학적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③ 숨어있는 지구의 보고: 지구상 마그마 활동과 연관되어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광물 자원들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자원들이 생성되는 원리와 과정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997-현재)
서울대학교 지질환경연구소 소장 (2015-2017)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박물관 관장 (현)
- 일시: 2019년 1월 19일(토) 10:00-12:00

58회 열린강좌

이지혁박사와 함께하는 특별 세미나

이슬람 경제의 출현과 한국인의 대응

10년동안 한국에서도 이슬람 채권이라고 불리는 수쿱(sukuk) 도입, 할랄 산업단지 건설, 할랄 식당, 무슬림을 위한 기도 공간 설치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이슬람포비아에서 부터 막연한 공포감, 무관심, 단순한 호기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강연을 통하여 한국에서 태동하는 이슬람 경제의 주요 이슈와 이슬람 경제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을 살펴보고, 향후 이슬람 경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인니문화연구원 객원연구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공저)
- 일시: 2019년 1월 26일(토) 10:00-12:00
-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 (코리아센터 한인문화회관 1층)
- 회비: Rp 100,000 (비회원 Rp 150,000) 점심포함
- 신청: 밴드맺글 <https://band.us/n/a5a4Y6t8G9ube>
(SMS/KT) 0815-181-3162 / 0838-7834-7811 (ID:ikcskr)

한국인 직원 구인 / 구직 적극 지원
아래 주소로 이력서 송부 바랍니다

✓ **急**한데 .. 유능한 人材를 어디서 찾나 ?

✓ **힘**드네 .. 쓸만한 사람 그렇게 없나 ?

✓ **費用** .. 들어도 좋은 직원 없을까 ?

Recruitment Service



OSSELN AJAYA

세르나자야

Korea Desk
0878-8042-9794
021-572-7214
hwangyh@os-selnajaya.com
www.os-selnajaya.com/en

domestic : Karawang, Cikarang, Bandung, Surabaya, Cibubur, Lembang, Jakarta : 19th fl. Mid Plaza II, Jl. Jend. Sudirman Kav 10-11 Jakarta, Indonesia
overseas : Vietnam, Malaysia, Singapore, Cambodia, China, Japan, HK, India, Australia, Germany, Belgium, Poland, UK, Chile, Peru, Brazil, Colombia, Ecuador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ICHTHUS SCHOOL



OPEN HOUSE

West Campus | Fri, 8 Feb 2018
South Campus | Sat, 9 Feb 2018

www.ichthusschool.com

PRIMARY | SECONDARY | PRE-UNIVERSITY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ur Campuses

South Campus:
Jl. Caringin Barat No.1 Cilandak Barat, South Jakarta 12430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l. Surya Mandala III Blok N II No. 11, Sunrise Garden West Jakarta 11520
T: +6221 581 2228

f Ichthus Schools
v Ichthus School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가시 서울	8895 7604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2018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혜정 전시부회장/헤리티지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루시 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0815 1941 1756

헤리티지코리아섹션 대표 : 김상태, 김혜정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15 0415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본가 (족자카르타)	027 4436 1301
치맥 (족자카르타)	027 2831 440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65	6036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리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라스	520	4181
트라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북공하숙(리보찌까랑)	0813	1415 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인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발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L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2018 재인니 대한체육회

http://www.ksai.or.kr E-Mail: sports-ind@naver.com

구분	직책	성명	휴대폰
집행부	회장	강희중	0816-798-221
	사무총장	방진학	0811-198-282
	감사	배응식	0811-993-7651
	사무국장	최석일	0811-888-9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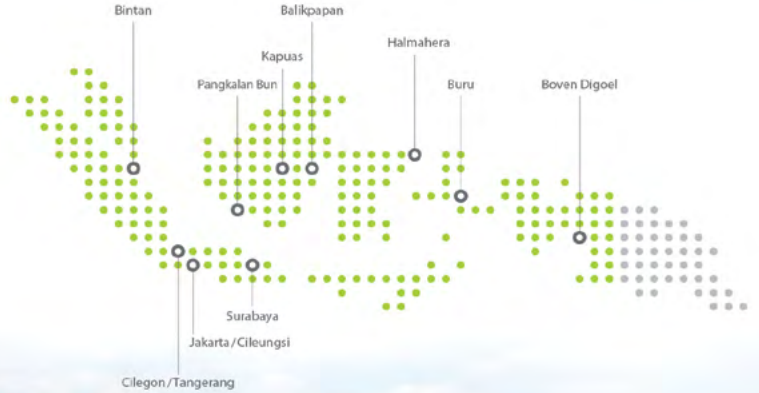
협회	검도협회장	강희중	0816-798-221
	탁구협회장	곽봉규	0815-1410-4167
	볼링협회장	김송정	0816-716-293
	용무도협회장	김대화	0811-188-2938
	골프협회장	한현봉	0811-111-5800
	태권도협회장	방진학	0811-198-282
	축구협회장	전용무	08111-009-252
	테니스협회장	정영규	0821-1032-624
	야구협회장	이창균	0815-1443-0000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9. 1. 2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한인회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오 명 근	0812-115-1004
		사무차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람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배 석 기	0816-1844-165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문 창 윤	0822-2220-8123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망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근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편모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